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4466 (서울역사거리) 4466 FAX: 961-4183
 발행인: 이경환 (전화: 961-4183) (팩스: 961-4183)
 편집인: 이경환 (전화: 961-4183) (팩스: 961-4183)
 발행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4466 (서울역사거리) 4466 FAX: 961-4183

1996년 4월 8(월) 제663호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 2453호 (주간)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인정가 1

“수석이를 이대로 보낼 순 없다”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까지 장례식 무기한 연기



지난 4일(목)로 예정됐던 고 노수석군의 장례가 무기한 연기됐다. 영결식을 마치고 학교 밖으로 진출하려는 장례행렬을 연세대학교 700여명이 막아선 것이다. 심장마비로 알려진 노군의 죽음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토끼몰이식 전담'을 명령했던 당국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29일(금) 거리시위 중 숨진 노수석(연세대 법학 2교)의 장례식이 지난 4일(목) 열릴 예정이었으나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과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아울러 오전 7시 30분 노군의 아버지 장례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8시부터 연세대 노현에서 영결식이 진행됐다. 10시 영결식이 끝나고 예정대로 운구행렬이 교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법대학생들이 중심지로 한 연세대 학생들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충정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고 '수석이를 이대로 보낼 순 없다'고 외치며 운구행렬을 막았다.

오후 12시 30분 연세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앞세워 학교로 한 기자회견을 밀실에서 열고서 정부에 책임을 물었고 장례식 일정 연기에 반발했다. 이에 연세대 법대학생들이 충장 기자회견에 합의, 충장실을 잠가하고 충장과 협상을 요구했으나 충장이 없는 관계로 법대교수들과 대담을 했다.

2시경 법대교수들은 충장을 비롯한 학교 당국의 책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4시 30분 '애국학생' 고 노수석 학우주모와 김영삼 정권 폭력살인집단 학생대행

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최고 책임자의 공식사과와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및 학교당국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학원문제와 관련된 정부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결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례일정을 연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 1만여명이 연세대 이대-충정로-서울역-남대문까지 고 노수석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평화시위를 폭력집단 입회로 감시한(총연대 경찰학) 군 등이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5일(일) 오후 4시경 연세대에서 '애국학생' 고 노수석 추모 및 김영삼 정권의 살인특검집단 규탄 학생 집회'가 치러졌으며, 6일(토) 2시 종로공원에서 약 2만명이 모인 가운데 법관단체회가 열려 책임자처벌, 10일 동맹휴업 성사를 외쳤다. 그리고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은 지난 6일(토)부터 명동상당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으며 오는 19일(금) 서울역 출발식까지 열사부활주간으로 정했다. 앞으로 계속적인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박병수 기자



청년의 선택

▲지난 시월 '쓰리 엑스'란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Sports(운동) Sex(성) Screen(영화)을 일컫는 말로 5·6급 군사독재시절,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변혁의 열망을 잠재우기 위한 정권의 술책이었다.

▲10여년의 암울한 군사독재를 뚫고 문명정부를 세운지 4년, 그 국민의 평가의 장이 될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의 모습은 평가를 감히 받아들이기 보다는 지난 정권처럼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9시뉴스의 '병크뉴스'는 이미 연립이 쌓인 시리즈물로 편집의 치밀함이 돋보이고, 새로 시작한 '북한특집'은 국가안보의식을 온 감도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전의 정권이 국민적 관심을 미끼를 통해 돌려놓았다면 문명정부는 고도로 조직화된 언론의 은폐와 조작으로 외국관 현상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집회를 나갔던 우연히 옛 고교 동창을 만났다. 왜 시위를 하느냐는 친구의 물음에 '노수석'이 시위도중 전경의 과잉진압에 의해 숨졌다고 설명하자 '아 그 사법 잘생겼는데. 심장이 비로 죽었다'며 친구는 반문해왔다.

1만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수석이를 살려내라'고 외치던 언론의 '심장사'란 보도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의 시위를 잘 막아내는 일로 전락시키는 그런 문명세상에 살고 있다.

▲총선이다. 물론과 분노를 모아 뭉친 우리의 진실들을 이젠 토해내자. 문명정부의 허울을 벗기기 위해 생명을 바친 7명의 열사들이 있다는 것,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데 세상을 알려야 한다. 전대대, 한총련 10년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청년의 모습으로 총선을 맞이하자.

김재경

1만3천 공동요구안 답변 나와 양캠프총학, 불성실 답변 항의

서울캠퍼스에서는 지난 1일(월)에 인권위원회, 대학 본관, 학생회관 등 곳곳에 '고 노수석'군 임시분할소를 설치했으며, 가슴에 검은 리본 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김근남(1일) 추모식 및 살인 정권 규탄 대회를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노현 극장에서 갖고, 학교에서 외대일 여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했다.

3일(수)에는 '1만3천 공동요구안'을 안팎 권리와 한총련 총괄기를 위한 애국대 집회'가 열렸다. 김의대회에서는 대법당에게

3일(수) 오전에 받은 요구안 답변서 내용을 보고가 먼저 있었다. 답변과 관련 상경대 학생회장 김창수(무역4군)은 "예전과 다름없는 불성실한 답변이다"라고 대학당국의 안일한 자세를 꼬집었다. 이어 총학생회장 박상동(상경·경원 4군)은 "한총련 교육재정확보투쟁의 불속에서 등록금 투쟁을 생략하고, 수석이를 죽인 김영삼 정권을 심판하자"라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김의대회 이후 총장, 재단사 무상을 항의 방문하고 1차 단식사에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보다 정확한 설명에 대해 제답변을 요

구했다. 오는 9일(월)에는 서울캠퍼스 정기총회 및 해오름식이 열릴 예정이다. 부총학생회장 나인우(동양·이과 4군)은 "올해 정기총회는 예전과 같은 밝은 화합의 장이 아닌 투쟁과 결의의 장이 될 것이며, 약식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3일(수) 한총련 총괄기와 더불어 '고 노수석 학우 추모식 및 김의정권 규탄을 위한 항산 7000 학우 집회'를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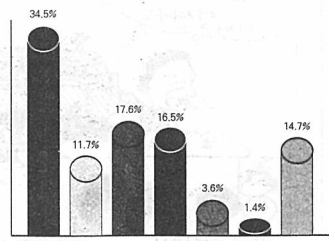
앞에서 가졌다. 이후에는 각 단대 학생회 중심으로 학생회관 1층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분향을 하고 상남시민대회에 참가했다. 경기도 부총련 소속 학생 40여명이 참가한 이날 경찰의 별다른 제지없이 진행됐다.

이날 시민대회에서 경기도부총련 의장 이재규(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자전·화 4군)은 "89년 이만 열 열사, 91년 강경대 열사에 이어 노수석군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정권 김영삼의 본질을 파헤쳐 열사의 한을 풀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수영·정병수 기자

현정부 평가 설문조사

경제, 최고 실정



(관련기사 9면)

지면 안내

노조 단체협약의 결과는? 3·3년

4차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결실은 어디로

꽃피자 '이문진' 씨 인터뷰...5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었던 이은

진짜를 만나 그동안의 결과를 들

어

비디오오방은 언제 종소다(?) 6년

비디오오방을 찾은 학생들 대

부분이

학생지도비 전환하자

3945천만원의 학생지도비 집행의

내용은?

사건특종

김영삼 3년후 평가한다

총선시기

외대학보 인지도 설문조사

연재면화 - 총선

4·11은 공화국 또는 심판의 날

참 세상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4·11 총선!

4월 11일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 천구 결혼식이라 힘들 것같아”
 “모교지나 가지”
 “몸이 안 좋아서...”
 “그놈이 그놈, 정치는 칠색이야.”

살만한 세상을 만들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십니까?
 내 권리는 포기하고 돌아서서 세상탓만 할수는 없습니다.
 4월 11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4년간 A/S도 리콜도 받을 수 없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받아 낼 수 있는 부패없고 비리없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의 한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독자주 언론
 외대학보

사 설

노수석군 죽음의 의미

올해의 봄은 진정한 계절인가? 등록금 대폭 인상에 따라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학사생활의 위기와 과정에서 경험의 진압을 받고 피하러한 한 학생이 숨졌다. 아직까지 없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희생된 노수석군이 소속되어 있는 연세대학교 반대 교수들은 4일 "경험의 과잉진압이 노수의 사망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부검 결과 노수석군의 직접적 사인이 무엇이었든간에 정부부처의 과잉 진압이 죽음에 남은 근본적인 이유였음을 부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견해이다.

이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고문이나 과잉진압에 의해 희생당한 빈 백종원, 이한열, 강경태, 김구경 등 반독재투쟁의 상징적인 죽음은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적 문명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정부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노수석군의 죽음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점들이 있다고 본다.

첫째, 전국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대폭인상이 정부의 대외정책과 표리관 계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주도한 대학등록금 인상제가 대학들간의 가치적이지고 외형적인 성장의 경쟁만을 불러 일으켰고, 이 경쟁에 뒤처지 않아야 한다는 명분하에 불가 인상을 통한 사회적 불평은 물론 4.5년사제 2배 인상이라는 등록금 과잉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한 톨도 수로 올리지 못 한 학교는 중앙일보에 불과했다. 게다가 오른 등록금은 학생들의 생활에 얼마나 들어가기에 따라 위와 이유로 하여 학교의 외형적인 발전 위주로 투자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등록금 투입이 효율을 얻으면서 전개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교육수혜자 주권 원칙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방비 삭감 등 예산의 획기적인 재조정을 통해 교육투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사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총선에서 학생들의 대대적인 사위가 감소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잉진압을 통해서라도 사위를 조장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상이 있었던 과거 군부독재정권 때와 별 다를까 없는 것이고, 이는 더욱 더 큰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삼차로 유발되었다 해도 과잉진압에 따른 사위 학생의 죽음은 엄청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셋째, 등록에 입하는 학생들의 자제이다. 등록을 통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항상 준법적인 의사표현의 중요성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평화로운 방식의 의사표현이 가져오는 효과가 약한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올바르게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한 결과는 관철되어지고 수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단계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것은 교육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의지를 갖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들을 입각시켜 많이 진출토록 하는 일일 것이다.

넷째, 대학교수들은 대학교수들대로 등록금 문제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립대학의 제자들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들의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대학직원들 또한 임금과 복지문제 해결에 있어, 그것이 필연적으로 등록금 인상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 가며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합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립대학 재단들은 노수석군의 죽음을 다른 대학의 일이나 간접히 불구경하듯 하는 자세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해왔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과 유사한 경우가 자신의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 없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노수석군의 죽음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과잉진압의 책임자는 분명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밝혀내고 사과하고 보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삼차 고문의 명백을 밝혀 내는 이러한 역할을 한 죽음을 낳지 않도록 당국자들과 대학원들 모두 명심할 때다.

흡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담담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상상한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나눠주세요.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울·울산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발송합니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OEDAE 모두 동일)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H.U.F.S의 웃을 입자

요즈음은 흡산보다는 U.C.L.A. 미시간 대학교 학생이 되기를 갈망하는 학자가 많은 듯 하다. 기술습 마다 미국 일류대학의 문장을 세우고 자랑스럽게 캠퍼스를 활보한다. 미국의 일류대학에 대한 무조건적 동경인가? 아니면 자신의 가슴에 어떤 가치를 새겨져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왜 구속하는가'라 하고 반문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의식의 문제다. 외대인이자라면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글자 하나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교육재정 확보를 외치는 자들이나, 이를 외치다 한 학생이 무한히 죽어간 자들이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사관 지하로 가지! 미국의 대량학살 대신 H.U.F.S가 새겨진 웃을 입자. 비싼 로열티를 지불한 가짜웃보다 H.U.F.S가 수놓은 진정한 웃을 입자. 그러하여 가슴 속 깊이 아로 새겨진 외대 사랑의 마음을 표출해 보자. 대중들이 조금은 생소하게 하는 H.U.F.S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H.U.F.S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랑스럽고 이 이름과 함께 외쳐야 하는 진정한 흡산이 되자.

이제 말이나 되는가?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고 한없이 보이다 하더라도 우리 210만여명이라는 되는 거대한 남북과 외대에 입학한 외대생이다. 우리가 만일 그 돈을 내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군무할 수 있을 것이며 이 학교 사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도, 우리에게 이렇다 할 복지도 재물까지도 없으면서 외대의 외대생들에게 도리어 큰 소치는 직원들을 해 한미라 하고 싶다.

'우리는 외대에 주안이며 외대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고

은혜(동양·아랍어1)

외국·언제라도 중단하라

지난 29일에 열린 대한저국 공개국회 및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훈연 동맹 휴업 결의대회 도중 김영삼 정권은 21세의 어린 청춘의 목숨을 우리곁에서 잔인하게 앗아갔다.

89년 이한열 열사, 91년 강경태 열사 이이 노수석군을 열사로 만든 소위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우리는 외대의 주인

연행자 비도태임을 복습할 필요가

이규설(서양·프랑스어1)

명수당

하얀 마음의 꿈

외대인인 흡산들의 마음은 하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새내기들의 마음은 하얀데 못돼 아이도 파란 색일 것이다. 그리고 외대의 미네르바 캠퍼스도 하얀색일 것이다. 하얀색은 모든 색을 다 포용하는 색이기 때문에 무한성을 가진다. 하얀 캠퍼스에서 하얀 마음을 가진 우리 젊은 흡산들은 무한한 꿈을 하얀 캠퍼스에 수놓아 그렸다 지우면서도 젊은 학생시절의 추억을 쌓아왔었다.

1964년 어느날 나는 친구들과 이문길 미네르바를 구경하였다. 그런데 나도 흡산스가 될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그 당시 단 하나의 교통수단은 버스였으며 전차는 청량리까지밖에 오지 못하였다. 버스 또한 청량리까지밖에 오지 못하였다. 비단 오면 모든 길과 교량이 전철로 바뀌었다 그 시절이 아련한 아픔과 같은 젊은 추억으로 가끔 내 가슴을 저미어 준다. 버스나 전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친구들은 대학교의 학생들은 우리 흡산들이 만들어내는 장엄하기까지 한 외국어 어학전치에 숨소리가 내지 못하고 숨어서 들은 하얀색 그 시절이 지금도 가끔 내 가슴을 생각나게 한다. 전차마다 버스마다 외대생들은 자기들 장엄하는 외국어를 소리로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세계 각국의 언어전치와 같은 장엄함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장엄의 불가리아이기도 하였다.

이름 알기부터 모든 빈 객실에는 빈객들이 선배 흡산들이 텃새같이 자기 자리를 기록하고 갔다 매일같이 외국어를 읽고 있었고 그 시절, 새내기인 나는 그런 젊은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합법한 마법으로 철학과 사랑을 논하였었다. 하얀 두루에 얹은 까만 양말장갑이 외대 그로도 있었었는지 - 국제행정학과 친구들과 국제라는 단어때문에 으크거리면서 세계를 논하였던 그 시절은 정말 어디있는지.

지금 우리 흡산들은 과거 우리들이 만들었던 외국어 엑스트라의 꿈을 잃었다. 동료들끼리 지난날 새내기들이 외국어를 읽고 있었던 그 시절, 새내기인 나는 당시 우리는 정말 누구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잃었던 모든 대로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들의 꿈을 가지고 할 일을 했던 것 같다. 하얀 우리 때는 아름다운 논과 장미밭이 마비로써 동산안에 있었다. 우리는 여름이면 새창과 한들레만 하는 작은 소박한 비탈길이었다. 그 시절은 이제 갔다. 그 추억의 향기가 깊은 미네르바 캠퍼스에는 우리보다 더 용기있고 더 큰 꿈을 가진 우리 후배 흡산들이 지금 서로 2000년의 외대를 창조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그들 나름대로 2000년의 꿈을 외대의 하얀 캠퍼스에 줄기차게 그리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외대 학생기자들 그들 나름대로의 예리한 이성과 사랑의 철학으로 2000년의 외대를 그리고 있다. 꿈과 난관을 불태우는 동료들끼리 철학의 꿈이 담긴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아름다운 2000년 흡산의 세대를 주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흡산들은 개미군단처럼 하얀 마음의 꿈을 2000년의 외대를 위하여 그리고 있다. 나는 이런 우리 외대생들을 사랑한다.

홍순남

(이문길과 교수, 서울캠퍼스 학생회장)

그대가 있기에 우리조국 달길을 가고 있습니다

- 망월동 동지 일동

하는 학교의 정무아 이제 내가 간다

-근조-

당신이 가는 길 따라 청춘으로 서

했습니다.

-청년 새내기-

귀신은 뭐하는지 몰라. 영상이 안

잡아가고-

-이파트-

영상이는 지옥행 특차장이야

-귀신-

-솔로몬 가는 길-

수석이를 살펴내라

-못다한 꽃 한송아-



주제: 노수석 학우의 명복을 빕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열사가 되길

-별 927-

출어전 꽃잎과 눈물보다 진한 소

주단

-솔로몬 가는 길-

내 권리 찾자는데 죽음으로

-못다한 꽃 한송아-

이혁(법 법학 3)

現代가 앞선 채용으로 21세기를 선도할 앞선 인재를 모집합니다



시험없이 채용하고, 자료없이 면접한다!

성적에서 성격까지 다각도로 평가하고, 자료없는

깨끗한 면접으로 소신인 인재를 선발합니다.



21세기형 인재를 첨단 채용 방식으로 뽑는다!

첨단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무서류 채용 시스템(Paperless Recruiting

System)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앞선 인재를 선발합니다.

전세계 인재를 향해 현대의 문을 활짝 엿었다!

인터넷으로 지원하십시오

■ 인터넷 WWW 서비스(http://www.hyundai.net)

▶ 자회사 ON-LINE(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대구)

▶ 채용정보 제공 및 기업소개

▶ 서류전형 합격자 조회(1996년 5월 10일)

■ 인터넷 접속 전화번호(01-431) 또는 02-725-6624

ARS 서비스

▶ 서비스번호 02-700-1913

▶ 서류전형 합격자 조회(1996년 5월 10일)

서류로 지원하십시오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1996년 4월 8일(월)~4월 16일(화) 오전 9시~오후 5시 (단, 4월 11일은 제휴)

▶ 교부처:

서울(110-733) 종합부서 1402 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

부산(110-733) 종합부서 1402 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

대구(110-733) 종합부서 1402 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

광주(110-733) 종합부서 1402 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

대전(110-733) 종합부서 1402 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

전주(110-733) 종합부서 1402 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

제주(110-733) 종합부서 1402 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

충청(110-733) 종합부서 1402 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

경상(110-733) 종합부서 1402 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현대인재개발원

▶ 접수처: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 접수처: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 접수처: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 접수처: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 접수처: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 접수처: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 접수처: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 접수처: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현대인재개발원(비밀)



미, 북한 통제 위한 장기전 돌입

총선 이후 남한 대북정책 중요

지난 9월 19일 미하원에서 첫 아태사무위원회 북한전문회가 열리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의 방향이 잡히고 있다. 이 전문회는 올해 북미 관계의 최대현안인 연차사무소 개설과 정전협정의 대북정책을 비롯하여 정전협정, 통치권 본 위계의 북미관계의 전망을 알아본다.

정전체제의 대체는

북미관계 개선의 분수령이었던 역시 정전체제의 대체문제 즉 평화협정의 체결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북한은 북미간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한일 양국간 '북미평화협정'이라는 고조된 대안을 제시하여 미국측의 귀추가 주목되었다. 당시에는 이처럼 정전체제는 무력화되어 북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미 및 남북사이에 각각 군사위원회 설치하여 평화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북한의 새로운 제안은 미국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방안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

시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수가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어 회계관계를 계속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북한이 공인한 '최종조치'이다. 이 최종조치는 판문점의 정전체제와 정전협정의 무효화선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전체제가 현실적으로 완전히 해체되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대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직면하게 되어 미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

북미 제네바 협상 이행문제

이 전문회에서는 북미제네바 협상의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가지가 다뤄졌다. 북미관계 개선의 현안 중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호 연차사무소 개설이 예정보다 지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스런 로드 차관보는 "모든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개설할 준비

는 것이다"라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이 급격한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북한 죽이기'에 나설 가능성은 아직 희미하나 대신 북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다소 일거수일처수 태도로 방관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미국이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이른바 장기적인 '연착륙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 무기판매의 지속 등을 위해 필요한 선에서 대북위협을 완기시키는 '미사일', '화학무기', '대미 위협' 등의 메시지를 가끔 전달할 것이다.

현정부의 '북한 죽이기'

'남북한 대화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북한은 북미 협의를 통해 남북한 대화를 약속했으나, 남북한 대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북미 합의 이행은 완결될 수 없다. (로드 차관보)'는 말에서 보여지듯이 미국

잠정협정안 제안했던 북한



〈글 쓰는 순서〉

1. 미국의 한반도 정치 개입사 ①
2. 미국의 한반도 정치 개입사 ②
3. 주한 미군 역할에 대한 재정립
4. 북·미 평화 협정안
5. 한반도 평화체제 가능한가?

요즘에는 가끔 이런 황당함(?) 위문이 든다. 지금도 '혁명'을 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은 남한에서 어떤 정치세력의 득세를 바랄까? 수구세력일까 개혁세력일까? 얼마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개혁세력의 득세를 바랄 것 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들어보면 남북한관계가 활성화 되었다면 몇 차례의 국면은 모두 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였다든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개시되었던 시기는 말할 것도 없이 유신통치의 개막과 일치하였고, 84-85년의 황금시대도 전두환정권이 국경을 부린던 시기였으며, 89년부터 92년까지 역시적인 '남북기관화'를 채택할 정도로 남북한 관계가 왕성했던 국면도 앞의 두정권과 성격상 다르지 않은 노태우 정권하에서였다. 물론 이 단순한 사실만으로 북한이 남한의 비민주적인 수구세력을 선호한다고 단언할 수 없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것은 수구세력의 집권기에 북한이 남북한 대화에 전적으로 나섰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문민정권에서는 현정권에 북한은 그 뜻이 어디에 있든 가장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의지의 발현은 아닐 것이라는 논평을 주고 있다. 그는 '전쟁의 위험이 넘으로부터 밀려'오고 있으며, 남한이 도발할 경우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어드레스 많이 들은 논리를 반복했던 것이다. 즉 남한이 전쟁을 '혁명'하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정전체제로는 북한의 안보가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의 당사자이며 남한의 후진국인 미국과의 합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인 것이다. 지난해 남북한은 모두 상대방의 전쟁위협을 들어 국내의 정치적인 안정과 집권자의 권력기반을 다져왔다. 현재 북한은 대내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상황이고 이는 자연 정치안정과 사회적 유대를 해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능하게는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91년에 제시한 내전 선포 경제개발의 개발 실적은 아주 부진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에서는 북한의 총체적 위기와 그에 따른 조기붕괴, 그리고 흡수통일의 논리가 부상에 앞선 것이다. 물론 남한내에서 이같은 논리가 득세한다고 해서

'그러나 핵문제의 증폭은 북한에게 기대의 소망을 주었다. 즉 미국과 직접 얼굴을 맞대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던 것이었다. 바이흐로 2차회담의 구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호기가 왔으며 북한은 이를 잘 사용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촉진시킬 것이며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의해 조성된 불리한 국제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만 보더라도 또 다른 당사자인 중국이 무관심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한이 누려야 했다. 근본적으로 평화상태를 보장할 수 있는 당사자인 남한이 빠져 있다는 것은 북한이 평화협정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자신의 체제보위를 위해 필요한 외부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협정 체결이 이어 취해져야 한다고 북한이 항상 주장해 온 한반도에서의 평화관리론 수 문제는 가변적일 수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도 과거와 비교할 때 호전되는 경향이 있다. 만일 북미 평화협정을 미국이 수용한다면 북한은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다소 느슨하게 처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 이든간에 북미평화협정 제안이나 지금과 같은 2차회담 구도는 남한으로서 수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그것은 당사자관계에 어긋난 편파적 남한의 주장이 무시되는 처사가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 진전되어야

평화협정 잠정협정 제의

지난 4월 4일 북한은 비록 불만족하더라도 지난 40년 이상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해왔던 정전체제유지의 변화를 전적으로 발표했다. 이미 지난 10월 북한은 미국이 북미간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거부할 경우 정전체제를 청산하겠다는 경고로 보낸 바 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평화협정체결 이전에 정전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잠정협정을 맺고 미국에 제의하였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태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 아니었다. 더구나 이 발표를 전후하여 북한의 고위급 국가들이 '전쟁불시론'을 국내에서 공공연히 밝히는 것으로 보이 이같은 조치가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발표 다음날인 4월 5일 평양방송을 통해 발표한 양형식 최고인민회의의장의 발언은 이것이 단순히 남한에 대한 전쟁도발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을 비롯해서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같은 논리가 힘을 얻는다면 남한과의 대화나 교류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느꼈을 것이다. 1980년대 이래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유는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왔던 것이었다. 1970년대 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미국과의 2차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체결 제안을 다소 수정한 1984년 1월의 3차회담안은 비로 이러한 의도를 처음으로 담는 것이었다. 북미평화협정과 남한간의 불가침선언을 순차적으로 하자는 이 제안은 그러나 남한과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980년대 후반 남북한관계의 폭발적 활성화를 북한이 남한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한 이득과 동시에 여전히 이 일관관계의 실마리를 엿볼라는 의도에 의해 조성된 것이었다.

북미 접촉관계 보장

북한은 향후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 미군유해수습 협상, 연차사무소 개설협상 등 각양의 접촉문제를 확보하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협상도를 확보하고 있는 한,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이 대북협상의지를 갖고 있는 한 평화협정체결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정전체제 불인정 전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대미협상의 평온점을 높여주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논리 이전에는 안보를 국제정치에 이용하여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의 대북위협, 그리고 이에 대한 강력한 입장과 국내적 안정의 호소는 과거 남한 정권들도 항상 사용했던 수법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남북의 끊임없는 수구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며, 이것을 돌파하는 요인은 결국 기존체제의 극복에서 찾아볼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과제이다.

류길재

(경남대 국제통상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치학 박사)

세계의 동부, 창조의 동부

동부와 함께 세계화의 주역이 되십시오.
건설, 제강, 화학 등의 기간산업에서
금융, 보험, 증권, 종합금융업과
신소재, 정보통신 등의 첨단산업까지 -
끝없는 도전과 한 발 앞선 혁신으로
창조적 진보의 역사를 일구어 온 동부가
당신의 21세기를 열어드립니다.

동부산업	동부화학
동부제강	동부생명
동부화학	동부증권
한 농	동부금고
동부건설	동부창투
동부고속	동부주택합부금융
동부Engineering	동부경제연구소

동부그룹

“시간때우기엔 최고죠”

비디오방,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이용돼야



학교 앞 비디오방은 비디오테이프를 전열하는 데 있어 단순히 '이웃'이나 함께 접하게 되는 공간이다. 언제부터 우리는 노래방에 그러했듯 비디오방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어 우리 할 일 없는데 비디오방이나 가자”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되는 말이다. 언제부터 우리는 노래방에 그러했듯 비디오방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현재 학교앞에는 15개 정도의 비디오방이 있다. 이들 비디오방을 찾는 사람은 각 비디오방마다 하루 평균 6~7명, 그

중 학생의 비율은 약 40%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H비디오방에서는 “비디오방이 처음 생겼을 때는 학생 비율이 7~80% 이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를 학생이 부쩍 줄었다”며 그 원인을 요즘 연예계풍조의 변화에 돌린다. 이어서 앞에 의하면 예전에는 비디오방에 와서 서로의 애정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굳이 비디오방에 예외 없이도 된다는 것이다. 또 이들 학생 중 남녀 비율이 오는 비율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디오방이 남녀간의 데이트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학생들이 비디오방을 찾는 이유는 제 1순위는 단연 ‘이웃’의 비디오 대여수령’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이었다. 주마다 나오는 대대수령을 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디오를 선택해서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비디오 매니아들이 즐겨 보는 상당히 자못있는 비디오, 또 혼자 비디오방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웃 비디오’를 본다고 한다.

한편 ‘비디오방’ 자체는 비디오방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으로 ‘고시생’들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주목한다. 이자리의 앞에 따르면 본래 고시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며 되고 그렇게 되면 공부 계획이 차질에 생겼으니 아무 지장 없는 비디오방을 선택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비디오방을 이용하는 학생 중 40% 정도가 고시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리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학교 앞 비디오방 15개 중 10개를 오는 9월 7일(금)부터 시행되는 ‘비디오방 사용기준’ 및 운영수령 사항(일반 및 비일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령을 기준으로 조사해 보았다. △영입장 면적 △동료 나비 △시청거리 △확보 △간격 등이 등은 대부분의 영입장이 기준에 합치하지만 △영입 시간(하루 24시간) △수령유리창 설치 △누수방지 불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치, 의자 배치 금지 등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영입장은 현재 2년에 1회 비디오 상영을 하더라도 더구나 늦은 시간에 남녀들이 갈 경우는 일부러 구석진 방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대학교에 위치한 비디오방도 이제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 이는 업자 혼자서 혹은 학생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업자들은 비디오 대여수령에서 상위에 위치한 비디오방을 전열해 놓고 각종 작품(특히 독립영화) 등을 고려한 전열이 필요하며 여기에 학생들은 단순히 비디오방에 전열되어 있는 영화만을 보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는 가져 와서 보며 또 총화영화와 각 영화별영화를 일련번호를 붙여 비디오방에서 좀 더 폭넓고 수준 높은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새로운 통로를 마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디오방은 이미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됐다. 이제는 이를 가꾸어주는 것보다는 수용하고 나름대로 생활속에 건전한 비디오 문화로 이끌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윤승노 기자

죽음의 자리를 지키자

생활 시평

많은 사람은 바다를 좋아한다. 바닷가에 앉아 바다의 거대함을 보면서 그것의 위대함에 감탄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앉았이는 모래사장이 그 바다로 가기 위한 시작인 줄 깨닫지 못한다.

지난 3월 29일(금) 우리는 이 사회의 모순점에 대해서 단정하게 말한 한 친구를 다른 세상으로 보냈다.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수석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또 수석이를 찾아간 정부에 책임을 묻고 또 그들을 지원했다.

때문에 학내와 종로로 여러 곳에서 그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집회가 있었다.

그러나 다시 학내로 돌아와보면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해야하는 어떤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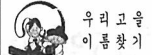
학내 곳곳에는 수석이의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다. 수석이를 보내며 애도하는 마음을 다스릴 갖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분향소가 어떤지 최근들어 너무도 초라하게 보인다.

분향소를 외면 속에 지나쳐가는 학생들, 또 심지어는 함의 불까지 꺼져있는 모습을 볼때 수석이를 위해 거리로 뛰쳐나간 분주한 학회의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바다를 바라보고 감탄하듯 수석이의 죽음에 대해 분노하고 투쟁의 결의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주위에 있어 언제나 갈 수 있는 분향소를 찾아 다스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 더불어 우리가 지금 지내는 학내에서 수석이의 죽음의 자리를 보살피는 것이 보다 더 넓은 사회에서 그의 억울함을 말해주기 위한 모래사장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김남균 기자



창덕궁 금원(5)

-일제에 일본 황제로 금원이 있었으므로 '비원'으로 고쳤다.

종교와 왕조의 문화인 안창호를 비원(5)에 일제에 의해 고쳐진 이름이다. 비원이라는 이름은 1904년 7월 일제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이름이다. 비원의 본래 이름은 금원. 창덕궁의 후원으로 복원 또는 후원이었다고 불렸으나 비원이라는 이름은 그 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중국이나 일본왕의 궁궐 정원을 금원이라 부르고 있었고 또 이는 궁궐의 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궁궐의 위엄을 나타내는 말이었으므로 자기네 왕궁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조선 왕조의 궁궐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여 이를 비원으로 고쳐 사용했던 것이다.

우리말기부터

빼돌려진 교내 성문화

부끄러워 말하지 않는것 뿐이다

당당히 자신의 권리 찾아도 상처받지 않는 분위기 조성돼야



분비는 전철이나 버스는 성추행이 가장 일어날 위험 장소이다.

3월 14일(금)에는 용인캠퍼스 통학버스 안에서 한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듯 이런 사건은 비단 여대생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대학입학의 비탈진 성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결과물처럼 나타나고 있다.

화장실을 비롯한 이곳 저곳에 쓰여진 음란스러운 문구들, 아무 여과없이 내걸리는 음란잡지, 학내 곳곳에서 잡사의 절망이 있는 이런 성문화로 인해 대학입학의 비탈진 성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결과물처럼 나타나고 있다.

00라를 찍는 등의 왜곡된 여성상을 정형화하는 놀이 문화도 문제이다.

이렇듯 일상 생활속의 저질성 문화는 성문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용인캠퍼스의 경우 등·하교 버스에서 손이나 허리를 잡거나 그 이상의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사물캠퍼스의 경우도 통고시 학생이 갑작스럽게 같은 시간에 걸리다 보면 지하철에서 이런 성추행이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 모교지를 찾을 경우 많은 여학생들이 숨에 취해 있을 때에도 이런 성추행은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통학버스의 부족 등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재발 사항들의 부족에서 기인한 바도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통고하는 8, 9시에 용인 캠퍼스 통학버스는 그야말로 혼잡으로 가득찬 시추처럼 땀땀하게 학생들을 태우고 달려간다.

또한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편향적이다.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사건을 바라보거나 ‘여자학에서든 잘못이 있겠지’ 하는 식의 생각이 문제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나름대로 이유를 문제해 속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런 성추행 사건에 대해 좀더 학내에서 이렇듯 (서하·영아 4)같은 ‘가해자책론’

피해자나 단위에서 사건을 축소시키려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건을 축소해 사건이 없었다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같은 또한 교내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로 보면 여학생들의 소극적인 응답으로 언어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학생들이 자신의 일이 알려질까 두려워 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추행을 없애기 위해 교내 규율제 등의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에 대해 토론했다.

전남대의 경우 간담사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결과를 보면 여학생들의 소극적인 응답으로 언어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학생들이 자신의 일이 알려질까 두려워 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추행을 없애기 위해 교내 규율제 등의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에 대해 토론했다.

물론 이런 개선은 남녀 모두 상에 관한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녀의 전환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학습과 주위에 있어 초기적으로 배려하는 학내 분위기가 필요하다.

김남균 기자

트로 키움

음식문화(5) — 말레이시아

타 종족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매개체



말레이시아의 전통 춤.

한 민족의 음식 문화는 그 민족의 속해 있는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음식문화와 직결되어 있는 환경이란 생태학에서 말하는 자연환경 이외에도 해당지역의 풍속들이 구성하는 사회의 종교적 문화적 환경도 포함된다. 말레이시아의 최대 종족인 말레이인들의 음식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말레이인들의 생활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열대과일과 그 중에서도 야자열매에서 추출한 코코넛기름은 말레이인들의 음식문화를 지배해왔다.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과 인도인들의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말레이시아에는 여러 종류의 문화가 혼합된 다양한 토착음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여러가지 영향 중에서 특히 말레이시아의 국교인 이슬람은 말레이인들의 음식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이슬람교도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단속기간이 있다. 이슬람교도라면 수행한 말레이인들은 이슬람력 10월인 샤왈(Syawal) 19일의 푸사(Pusa) 혹은 아이달 푸사(Aidil Fitr) 명절을 맞게 된다. 하리 라야 푸사(Hari Raya Pusa)로 널리 알려진 이 날은 말레이인들에게 가장 큰 축일이 되며, 이날은 단식을 끝내고 풍상시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즐긴 수 있다는 기쁨도 있지만, 단식을 성공적으로 끝낸 성취감이 있어 이들을 더욱 기쁘게 한다.

말레이인들은 푸사라는 갖는 기쁨을 가족, 친지와 이웃과 함께 나눈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사람들은 푸사의 고향을 찾으며 온가족이 함께 모여 우애를 나누고 정을 돈독하게 하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이웃과 친지의 집을 방문하여 지난 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서로서로 용서를 빌고 이를 용서하게 받아준다. 가족들끼리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을 할아놓고 용서를 빌는다.

이웃과 친지들의 방문에 대비한 준비를 ‘푸아 퍼르 부카(Rumah Terbuka)’라고 한다. 이때를 위해서 간단하지만 특별한 음식이 준비된다. 식사로(Ketupat), 르망(Lemang)을, 반찬으로는 퐁당(Rendang)과 사바(Sate) 등을 만들고, 도돌(Dodol), 방징(Bangkai) 또는 바츄루(Bahulu)와 같은 떡볶이류와 과자류가 준비된다.

깨우떡과 르망은 상사하는 밤에 비해서 맛이 고소한 점이 마음에 들어 대접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점이 이외에도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말레이인들이 선호한다. 르망은 대나무를 잘라 그 안에 바나나잎을 말아놓고 다시 그 안에 들어 불린 찹쌀과 코코넛을 넣은뒤에 불에 구워 만들고, 깨우떡은 여자를 나무 잎으로 주머니 모양을 엮어서 그 안에 찹쌀을 담은 후 삶아서 퐁당이나 사바와 같은 반찬류와 함께 손님을 대접한다. 깨우떡과 르망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상향한 말레이인들을 대표하는 음식인 동시에 푸아 퍼르부카를 통해서 타 종족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양승윤

(미언어과 교수)

문화와 달

새 책



이석민 저

해방기 연극연구

태학사/8,000원

해방은 연극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다른 장르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최후까지 연극사 연구를 정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방기 연극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 중에서 특히 해방기에 일어난 연극운동에 관한 연구는 몇몇 연구로 대강으로 삼고 있다.

이 책은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통일문화라는 생각으로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한 회국 작품도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쪽(남한)의 연극 역사 배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연극의 역사를 통째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김현주 저

일본이아기

창작비평사/6,000원
오늘날 경제와 협력의 양면적 존재로 다가오는 나라, 일본.

일본 사람들의 직업의식이란 것이 집단적, 이종성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특징들을 작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고 그 특징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우리의 잘못된 일본 인식, 일본의 역사 등을 통해 현재 일본은 어디로 가려하는가를 얘기한다.

강제징용과 피상적인 관철을 머문 기존의 일본 관련 서적들과 달리 재미와 깊이를 모두 갖춘 책이다.

생일도시관 추천도서

미학 에세이

철학/주관적 지음, 유종준 옮김
미학을 재현한 탐구, 논리의 사색의 대상이 아닌 주제적 실천의 계기로 보고, 따라서 아름다움의 본질과 영역을 삶의 현장·역사적 경험 속에서 추출하려는 관점으로 서술된 책이다. 18년의 에세이들을 통해 먼저 미학의 고전적인 명제들을 거론 하고, 그것이 서구 미학사에서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미학의 고전적인 명제들을 거론 하고, 그것이 서구 미학사에서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미학의 고전적인 명제들을 거론 하고, 그것이 서구 미학사에서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보여준다.

신필노조론

미려사/한국산업사연구회 편
87년 여름, 노동자 투쟁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노동운동의 대중적 기반이 확대되었고, 노동자들의 의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의 민주 노조 운동이 그동안 '기밀적 노조' 제 속에서 억압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이 이 책을 통해서 노동운동의 더 이상의 질적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기밀적 노조 제 속에서 갇혀 있는 한 한국의 노동운동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정치적 실천의

역할은 물론 노동운동 내에서 최소한의 내적 연대와 공동 실천의 조건조차도 구비하지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산별 노조란 과연 무엇이며, 다른 나라에서의 실천 경험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능하고 바람직한 유형의 산별 노조 제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산별 노조 건설의 전제와 방법, 과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김현서

타락사

본래 중경삼림에 담고자 했던 세번에 여섯소

본래 중경삼림에 담고자 했던 세번에 여섯소

본래 중경삼림에 담고자 했던 세번에 여섯소

본래 중경삼림에 담고자 했던 세번에 여섯소

본래 중경삼림에 담고자 했던 세번에 여섯소



김기림 감독

중경삼림을 보여 적인 한해 회고의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대인이라는 한 친구를 만난 것이다.

일시: 4월 9일(화)
14:00
2회: 17:00

장소: 대강당
주최: 시청각교육원
(이외도 영화)

12 몽키즈

감독/테리 길리엄, 주연/브루스 윌리스, 브래드 피트

서기 2035년 지상은 '12 몽키즈'라 불리는 강력한 전염성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을 갖고 있는 생물이 아니라 남을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으로 변해 있다. 이에 인간들은 바이러스를 퇴할 수 있는 지혜세계에 살고 있으며 '12몽키즈'

의 비밀을 캐기 위해 범죄자인 제임스 콜을 파견

파견된 인류를 멸망의 길로 달게 한 '12몽키즈'의 정체를 알아 오도록 한다.

'타미에리사'의 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결과 그렇게 만났다는 것이다. 감독은 이 영화를 너무나 인간적으로 풀어 나간다. 내일

에 대한 희망은 없지만 어쨌든 맛을 즐겼다고도

오늘의 행복을 지키고자 하는 주인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서

고침

공인분과를 연행분과로 바로 잡습니다.

사실문화, 빛소, 그림사상, 미술관, 사진관, 서우회

사실문화, 빛소, 그림사상, 미술관, 사진관, 서우회

사실문화, 빛소, 그림사상, 미술관, 사진관, 서우회

다시보는문민정부



'한판도 안 벌었다' '술만좀 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해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것만 해도 1조 2000억, 대선자금의 법적 한계는 367억 원이라고 한다. 현재 확인된 김대통령의 대선 홍보비만 535억원이다. 대선 직후 김대통령은 '이런 선거 한 번만 더하면 나라 망한다'고 했단다. 누가 양치기 소년인가?

93년 긴 군부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우리는 문민의 봄, 참민주주의 시작을 외치고 기대했다. 그리고 문민정권이 출범한지 3년을 맞고 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김영삼 정권은 진정한 문민이며, 참민주인가? 문민독재와 반민주 아닌지.

제작:사진부



문민 정부 3년, 한 달에 한 명씩 우리 이웃이 정부의 폭력에 죽어가고 있다. 병역제도의 모순에 의해 노조 운동을 하다 목숨을 잃어야 했던 조수원 씨. 칠거 죄를 동원한 강제철거 도중 의사환 이덕인 씨. 서위 도중 경찰의 강경진압에 사망한 노수석 군. 군사독재 시절, 처를 잃게 했던 정부의 소행들이 소위 문민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방의 모순을 외치는 자들의 죽음을 그저 지켜보아만 했다.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된 의대 박정희 교수, 일제의 잔재인 '국민학교'를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자는 운동을 했었으며, 재자들 앞에 굳은 모습의 스승이었다. 정당성없는 옛 정권이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만들어낸 국가보안법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준이고 명분없는 악법이다. 김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런 반민주적인 악법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필요하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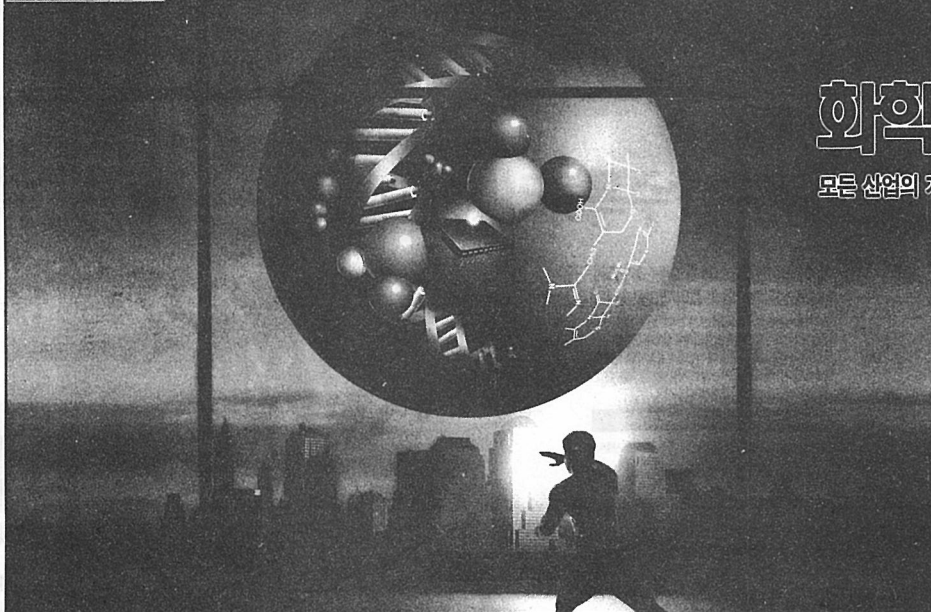


지금 대도시 일대에선 도시 재개발이 한창이다. 그리고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돈 몇푼과 어렵기만한 서류들을 가지고 거리로 나서야 한다. 재 집을 지키겠다는 용무림은 고층빌딩과 묵언하는 경찰에 의해 철저히 짓밟힌다. 아파트는 남아는데 집 없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는 나라, 김영삼 정부의 민중배려적인 사회 시책은 이 땅에 수 많은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해탈하지 못하고 있다.



80년대 당시 학생들과 함께 불법(?) 거리 시위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정치인이 있었다. '공권력의 투입으로 무고한 학생들을 죽이지 마라'며 머리띠를 붙인 취미메고 구호를 외쳤던 주인공은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다. 지난 3월 29일(금) 대선 지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던 한 학생이 사망했다. 경찰은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이라 했지만, 그런 죽음을 부른 것은 명백히 경찰의 강경 진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사과의 말도 하지 않는다.

正道경영·초우량 LG



화학강국이 세계강국

모든 산업의 기초는 화학-화학산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반도체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의약산업...

인간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하는 모든 첨단산업도 알고보면 그 핵심기술은 화학입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는 화학-

LG화학은 한국 최대, 세계 굴지의 종합화학회사로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화학산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자동차, 우주항공분야의 연료, 아민 프라스틱 등 최첨단 고기능 신소재 개발
무공해 농약, 생활용품 첨가제, 석유화학 중간체 등 고부가가치의 신물질, 신기술 개발
첨단공정 핵심기술을 응용하여 인간친화성으로, 세계최대 화석계 등 첨단화학 신물질개발
고도의 기술융합 연구로 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반도체 기초소재 등 개발

화학강국

고 분 자 정밀 화학
바 이 오 텍
정보전자소재

LG화학

LG/화학CU·LG화학·LG석유화학·LG MMA·LG오일스프링·LG일라이드스프링·LG실트론

민심기행 - 김영삼정권 3년을 평가한다-농업

농민은 떠나고 재벌만 돌아오는 농촌

농촌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필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김영삼대통령의 '신농정정책'을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농사일로만 생계조차 잇기 힘들어 도시로 떠났던 사람들을 '3년만에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김영삼 정부의 농업정책이었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떠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을까? 농민들은 김영삼정권의 농

업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과수농사 등으로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다(가)"는 나뭇을 찾았다. "돌아오는 농촌"이란 재벌들이 땅을 사들여 배를 지어 돌아오지만, 나뭇 타마늘에서 만난 40대들의 이색적 '속시원하게 걸터앉아' 얘기한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현 정권의 농업정책은 한마디로 '돈벌이 농민'이 아니라 '농민'이다.

현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사람은 몇 안된다. 비농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1ha(약 3천평) 이상의 농지에 흠뻑, 트랙터로 경작을 해야 겨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농민의 60~70% 이상이 1ha 미만의 소농이라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김영삼정권의 '신농정'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색적인 농민들의 농사는 도박이라고 말한다. "도박채 무엇을 경작하든 안팔리지 도박지 감을 잡을 수 없는" 농업정책으로 인해 '작년에 마늘값이 잡아서 마늘을 경작했다면 올해는 어김없이 마늘값이 떨어지는 현실'이 나올 도박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정책이 물가안정이나 재정부담 경감보다는 '농업생산 및 농업소득의 유지'

증대'를 위하여 짜여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농산물 가격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매가격, 수매량, 예산, 개입절차 등 중요한 사항이 국회에서 논의·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정책이 물가안정이나 재정부담 경감보다는 '농업생산 및 농업소득의 유지'

제도'를 실시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의 실시가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말한다.

이 지역 농민들은 현재 정책적으로 시급한 의료보험 통합제도를 중심으로 산비료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나뭇 농민회간사 신수산(58)은 "공무원들은 임금에서 3~4%만 보험료로 내지만 농민은 기본보험료에 농작비 보험료(소·돼지·농업시설물 등)까지 계산하니까 두 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현재 의료보험제도가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농민회에 잠깐 들렀다는 김씨는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농민이나 농민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르는 채 착상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농민이나 농민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르는 채 착상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쟁'이라는 정책이 농민들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소수농에 인력을 통한 첨단 농업은 기업농·전문농 육성, 토지소유 상환제를 상환조정장

것으로 '농민은 떠나고 재벌만 돌아오는' 결과로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박정민기자

성남연합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세상을 확 바꿨다"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이복 수해등도 돕기위한 쌀 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정형주(웅인캠퍼스 88년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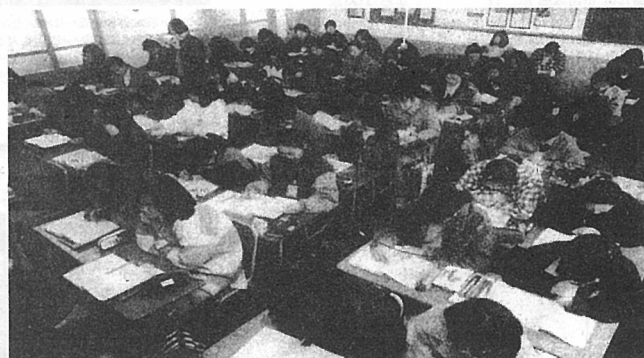
우리나라 교육은 일년지소계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 필요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옛말이 있다. 이는 가르침의 방법이나 계획을 세울 때는 한 인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조상들의 말이다. 사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일찍부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고민하여 여러 국경시 안 중 비교적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더욱 이에 대한 발전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이 우리나라의 교육실정을 본다면 우리 조상들의 말이나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교육정책이 전혀 반영되지 못할 듯 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1위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단언하였으며 매해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고생들부터 학부모까지 예전의 교육제도보다 달라진 것은 없다고 느끼고 있다.

김영삼 정권은 지난 해에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자연의 이해와 요구에 따른 유연적인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각계 단체대표와 인사들은 5·31 교육개혁안이 현 정권의 인가정책의 반복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가문 대표로서는 '이것이 바로 대학입시제도이다. 해마다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고, 따라서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994년 대학입시 제도부터 시행된 '수확능력시험'은 기존의 양자위주 교육을 타파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취지는 비교적 좋은 여론을 얻고 있으나 최근 3년동안 이 제도는 통용되지 못한 채 여러 방법으로 변화를 겪어 이 시험을 다시 치르는 수험생들은 많은 혼란을 겪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초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예전보다 교육제도가 나아진 것은 없다

이밖에 상수를 하고 경인지역 S대 입학한 Y군은 "두번이나 시험제도가 바뀌고 그 혼란으로 이번에 또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각 대학이 해마다 전형방법이 바뀌어 합격제 입학한 친구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GNP대 교육정책 5% 확보라고 김영삼 정권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

되더라도 본질은 수혜자 부담에 다를 바 없다. 또한 대학에 대한 권한과 재 자율에 맡김으로써 이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경인지역 K대 3학년 재학중인 학생의 한 학부모는 "합격제를 하여 필수수업이 120시간이고 대학생활과 고등학생을 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등록금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 최저 생계비까지도 위협을 받는다"며 "앞으로 고등 학교에 다니는 작은 예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더욱 걱정되는 것은 예는 취직을 시키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지 못한 인간대접을 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것을 본래, 현 교육정책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며 서민들은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전혀 제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시기 김영삼 정권은 과거 군부독재보다 더 지속적인 민생탄압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본도 이를 속죄의 도구로 사용하므로 여기에 대한 간접적인 민생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에 대해서 서민들은 직접적으로 발언을 못하고 있다"고 이 지역 농민들은

다가를 총선에 큰 영향이 있으리라 믿고 의심치 않는다. 이는 평범의 고등학생을 둔 대학생이나 이자세에서 증명된다.

"차라리 대선자금 받은 거 가지고 학교교육에 투자 좀 하지. 이만한 창기는 게 대통령인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박현우 기자

이번 총선에 바란다.

특정인 지지 정서의 극복

15대 총선이 임박했다. 이번 선거는 이른바 '문민시대'의 첫 번째 총선임에도 무미건조한 논쟁을 자아내고 있다. 그 주요한 원인은 특정인에 대한 절대 지지 정서의 확산에 있다. 이합집마의 반목으로 정권변환국당의 역사는 유권자로 하여금 정당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정당보다는 특정인과의 관계를 후보자 선택의 주요한 잣대로 삼게 되었다. 이른바 3김 정치가 그것이다.

3김은 지역정서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절대지지를 담보로 삼아 집권 욕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기 위해 인간 함을 쓰고 있다. 7·80년대 기존 정치를 비판하던 개혁세력들 중 상당수가 이들에게 포섭되어 3김의 세력화장을 위한 선봉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15대 총선에서 서울 경기지역에 대해 정권지역이 최대 적전지가 되는 것은 이들 지역에 특정한 맹주가 있기 때문이다. 무주공산은 차지하려는 움직임은 신해령만 주류로 나타났다. 중국 군벌들의 세력다툼을 연상시킨다.

21세기 문명의 위를 위해 열심한 힘을 쏟고 있는 현재 우리의 상황은 문명인의 잔인한 중국의 군벌시대에 비교되는 것은 자나니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나타난 선거의 결과는 유권자의 투표 분산이 원인이 아니라 분권화라는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군벌은 무력을 바탕으로 삼아 자신의 지배를 유지시키는데 비해, 현재 우리의 상황은 유권자의 절대지지를 바탕으로 21세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최소한 투표 분산현상은 군벌시대보다 더 분권화되어 할 수 있다. '분권' 구조는 선출직을 가지지 않는, 대안제안이 가능한 여부는 15대 총선에서 가장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특정인 절대 지지는 근한대 이후 자취를 감추고 우리 민족의 문화정신을 재현해 온 분권주의의 주요한 표현이다. 4·11 총선은 바로 우리 국민 스스로 분권주의를 선택하는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각 후보들의 공약의 내용과 신빙성을 잣대로 삼아 진정한 일꾼을 선출함으로써, 특정인의 불모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민주유권자로 태어나야 한다.

임춘삼(목포대 교수)

만도기계
이제부터
만도는 스포츠를 통해
가장 가까운 사람에
친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만도'를 주목하라!

기업 연령 '91년 38.44세, '94년 37.55세-
만도의 생각과 행동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젊은 기업, 만도-
해마다 전경으로 미래에 함께 도전합니다.
2000년대 매출 5조,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회사를 목표로
세계와 미래를 향해 달아나는 젊은 기업-
혁신하는 만도의 21세기를 지켜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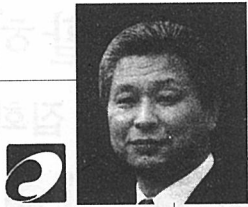
기업 연령지표란?

매출액 증가율, 총인원, 경영자 평균 연령 등의 지표로 산출되는
기업의 나이. 기업의 성장성과 관련성이 높으며 지표로
만도기업의 나이 30세, 매출 19조 원, 직원
가장 젊은 기업으로 평가되었으며, 만도기업은 '91년 38.44세,
'94년 37.55세로 해마다 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그룹-
만도기계(주)

사 회 기 획

총선거 개혁안은...

홍기훈
민주당 선거개혁단장이해찬
새정치국민회의 선거개혁단장

총선을 준비하는 각당의 선거기획단장을 통해 당의 공약을 알아본다. 4당 모두를 만나려 했으나 신한민주당과 자민련 측은 약속을 거절해 취재하지 못했다.

공통질문

-13대 총선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한마디

국민: 크게 보면 냉전분단체제와 정치에서 공존과 통일시대의 정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만드는 20세기의 마지막 총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1세기를 새로운 시민민주사회로 만들기 위한 첫 산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만 보면 보편적 정당 3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이다.

민주당: 21세기 비전에 대해 어떤 내용의 대안을 세울 것인가. 한국정치의 전근대적 보수성과 지역할거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세우는 기회이다.

-청년학생들에게 귀담의 지지를 호소한다

국민: 앞서말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통 민주세력의 주류인 국민회의가 정치를 맡아야 한다. 5.16 이후 30년에 걸친 군부독재의 아암해은 정권은 이제 청산해야 한다. 또한 분단체제의 모순, 경제성장으로 인한 경제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혁이 정치를 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수준높은 판단을 바란다.

민주당: 2002년 월드컵을 3집과 같이 하고 싶은데, 그것이 싫다면 대안은 뭘 한 것이다. 3집으로 표현되는 지역할거와 보수를 이룬 한변에 쥔 수는 없더라도 민주당의 득표를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총선의 최대이슈인 대선자금 공개할 방안

국민: 이번 선거를 통해 여야에 국민이 되면 정권교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국회법을 개정하고 특별감사청의 강제구입제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여 강도높은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다.

민주당: 15대 국회의 헌안이 바로 대선자금이다. 여야에 대해서는 국회강화를 통해 야가 주도하는 대선자금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다. 예전에 했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런 청문회가 아니라 대선자금 공개를 확실하게 강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육재정 GNP 5% 대비는 공약

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교육재정은 확보가 아니라 이미 있는 국가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방학비 삭감, 오피스 임대, 피인배분배는 국방비를 교육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의 문을 활짝 열어 학교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신 졸업생의 취업에 대한 지원의 교육비를 받게 해야 한다.

민주당: 교육재정 GNP 5% 대비는 노태우나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그러나 현재 4%가 채 되지 못한다. 이것은 국가예산 체계 자체가 방만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사회복합이나 교육에 투자되는 것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젠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호법을 입법하겠다고 했는데 이 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 이나라에나 기본적으로 국가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 법은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념을 문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특수조항의 폐지 등 일부 개정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민주당: 우리당은 국민회의의 민주집약수호법을 입법을 단리한다. 국가보안법은 21세기에 남북 통일을 위한 해를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에서 헌신 등으로 사회문

제화되고 있는데 국민: 노조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복수노조 금지조항, 제3자 개입금지, 노동자의 정치활동 금지 등 3대악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당의 공약이자 목표이다. IL의 권고도 없고 노동자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당: IL 권고수준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MBC 파업에 대한 귀담의 입장은

국민: 이번 파업은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보장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조지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율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가장 두드러진 것이 언론과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한 간첩공세이다. 이번 MBC파업을 통한 간첩사들의 단일노조 결성을 위한 유의미한 투쟁이었다. 힘 닿는

대까지 도울 것이며 이번 일이 언론사 내에 퍼져있는 YS장학생까지 걸러낼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

-참거로 인민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국민: 입대아파트를 미리 건설해서 원주민들을 수용하고 이후에 개발을 하는 순환식 재개발이 정착해야 한다. 현재의 문제는 대책없이 이뤄지는 철거로 국민의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 신림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적으로 순환식 재개발을 실시했다. 이를 지자체들이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 국가개발의 모델이 경제성장의 외환과 삶의 질의 변화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재개발은 자본의 논리가 개입되는 투쟁이다. 민주당은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민회의 개발입장

-국민회의는 전라도당이라는 인식이 높은데 지역분할구도를 극복할 대안이 있는가

국민: 지역분할구도는 3당합력을 통한 여당의 확대이다. 김영삼정부의 PR중심의 인사정책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나.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또 그것을 선전하는 언론에 대학생들이 솔깃해서는 안된다. 호남지방은 그간 피해만을 보는 지역이다. 피해받은 사람들을 돕자는 것이 지역분할구도인가?

-20대 수수 공개이후 20여 +60 세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순수하게 20여 받은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타당성이 없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증거도 없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또 언론도 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번 전국구비례제 개헌안이 실시됐다. 그런데도 한문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지 않나. 증거를 대고 그 다음에 규명을 요구한다 할 말이 없지 않나 이것은 너무하다.

이번 정국으로 사건을 보자. 일개 부속 실장이 수습직을 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김대중에게는 있다는 증거는 있는데 얼마인가가 문제되는 것 아닌가? 학생들은 증거는 소문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대선자금을 밝혀야 한다.

-김대중 총재의 정계복귀로 인한 민주당과의 분당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는데

국민: 국민들의 실망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의 상황을 보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성원이 있어도 소와 해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지도부의 문제였다. 지도부의 무능력이 현 정부를 견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국민회의는 지금 1/3을 확보하는 의식을 획득했다. 만일 분당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세력이 지금 더 많았을 것은 아닌가? 아예를 따르자.

-3집시대의 종식과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서 말했듯이 지금은 과도기이다. 새로운 요구와 기존의 요구가 공존하거나 상충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것만을 추구할 수도 기존 것만을 고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점차 강화해나간다. 그렇게 하면 21세기는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는 데가 될 것이다.

-18학벌정비에 대한 입장은

국민: 정비는 정부에 종속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못하다. 국민회의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독립성을 주장해왔다. 특검제 도입을 통한 엄정한 수사와 검찰의 자기검열 강화, 이것은 우리의 공약이다. 여야에가 되면 입법을 제안할 것이다.

민주당 개발입장

-민주당이 신한국당의 2중대라는 설이 있는데

국민: '한반도'는 남십이다. 신한국당이 얘기하는 개혁과 우리의 개혁은 다르다. 우리는 제도와 인건, 개혁이 정치권 위주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택했던 것은 여러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다.

-민주당 공천 현금 소동에 대해

국민: 우리는 모 람과 비교하여 국가보조금이나 여러가지 불합리한 조건이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정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임무를 잠시 잊었을 뿐이다. 즉 각자으로 대국민 사명을 했다.

-김대중씨의 정계복귀에 대해

국민: 김대중씨의 정계복귀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자연스럽 게 흐르는 물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 하는 점 여부가 부족한 모습이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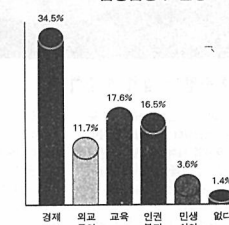
김수길기자

대선자금 공개해야 한다(77%)
교육재정 확보돼야(87.7%)언론의 공정성에
대해등록금인상 저지
에 교육재정 확보

노군사상에 관해



김영삼정부 실정



총선이 불과 3일 앞을 다가왔다. 말도 많고 실로려웠던 선거기간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은 현정부 3년에 대한 평가의 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보는 외대 학생과 인근 주민 136명을 대상으로 총선 시기 정점으로 떠올랐던 사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작은 인원을 바탕으로 많은 질문을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식흐름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노각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도 함께 실는다.

국민: 이번 선거를 통해 여야에 국민이 되면 정권교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야가 주도하는 대선자금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다. 예전에 했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런 청문회가 아니라 대선자금 공개를 확실하게 강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가장 두드러진 것이 언론과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한 간첩공세이다. 이번 MBC파업을 통한 간첩사들의 단일노조 결성을 위한 유의미한 투쟁이었다. 힘 닿는

국민: 국민들의 실망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의 상황을 보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성원이 있어도 소와 해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지도부의 문제였다. 지도부의 무능력이 현 정부를 견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국민회의는 지금 1/3을 확보하는 의식을 획득했다. 만일 분당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세력이 지금 더 많았을 것은 아닌가? 아예를 따르자.

국민: 정비는 정부에 종속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못하다. 국민회의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독립성을 주장해왔다. 특검제 도입을 통한 엄정한 수사와 검찰의 자기검열 강화, 이것은 우리의 공약이다. 여야에가 되면 입법을 제안할 것이다.

국민: 김대중씨의 정계복귀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자연스럽 게 흐르는 물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 하는 점 여부가 부족한 모습이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김수길기자

지난 29일 (금) 사망한 노수석군의 사인에 대해서는 (표 2) 25명의 응답자가 경찰의 구타라고 답했으며 71.3%는 직접적 사인이 무엇이었든 경찰과 관련된 사인이라 생각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심장마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7명이나 돼 언론의 잘못된 속소보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군이 죽었다는 집회의 내용이기도 했던 등록금 인상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에 대해서는 (표 3) 87.7%라는 압도적 다수가 '정부지출을 통해 등록금 인상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기타에서 '등록금 사용내역을 밝혀야 한다', '재단 전입금이 확증해야 한다', '학생들이 보정해야 한다' 등의 답변이 나와 본보기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인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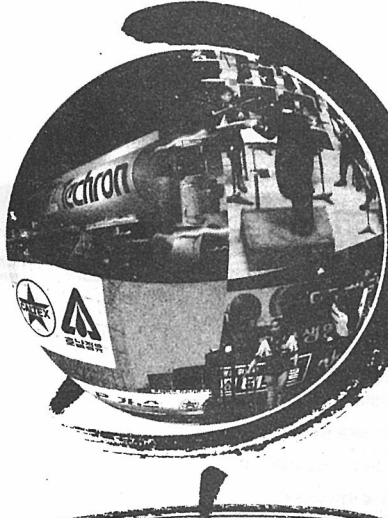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총선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에 대해서는 81%가 신뢰하지 않다고 지적당에 대한 질문에서는 50.7%가 지지정당이 없거나 인물을 보고 판단한다고 답해 기존정당에 대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불신이 높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정부 3년의 평가에서는 (표 4) 경제분야가 34.5%로 가장 큰 실정분야로 드러났고 이외에도 교육(17.6%), 인권 복지(16.5%), 외교, 통일(11.7%) 분야가 지적됐다. 특이한 것은 기타에 응답한 20명 중 16명이 '총체적으로', '모두' 잘못했다고 밝혀 문명정부 3년의 평가가 부정적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사취부

正道경영·초우량LG

● 고객서비스/불공정사태신고
● TEL: 080-023-5151(수신자 부담)
(02)3777-6090
FAX: (02)3777-6099

호남정유는
세계최대로 만족하기 보다는
세계최고를 원합니다.



- 엔진보호 휘발유 테크로 솔리드 및 스타트유와 고계사비시스템 운영
- 세계 최초로 재상기동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동 및 해동과정에서 엔진을 보호
- 호우배구단, 푸른문화예술축제 및 신장 기금과 월드컵 유치금 기탁
- 출항에 나지, 상용화사업인 PACESETTER 및 '96 공정거래 우수업체로 선정

21세기 세계 초우량기업을 목표로-

엔진보호 휘발유 테크로 솔리드 및 스타트유와 고계사비시스템 운영

그 이름에 책임지는 자세로

호남정유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계기업으로,

문화, 체육, 사회사업에 힘쓰는 국민기업으로,

중화화 공업을 이끌어가는 국가기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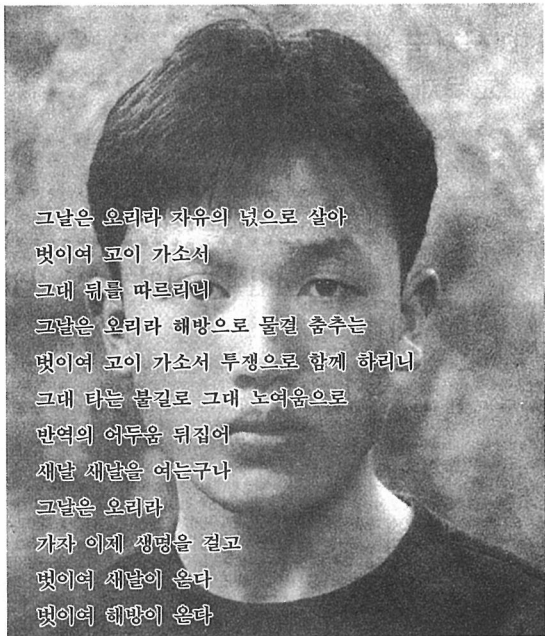
우리의 힘과 뜻을 모아

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를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남정유주식회사

열사로 다시 부활하라

추모열기 확산·한총련 연일 집회 열어



그날은 오리라 자유의 뒀으로 살아
땀이여 고이 가소서
그대 뒤를 따르리니
그날은 오리라 해방으로 물결 춤추는
땀이여 고이 가소서 투쟁으로 함께 하리니
그대 타는 불길로 그대 노여움으로
반역의 어두운 뒤집어
새날 새날을 여는구나
그날은 오리라
가자 이제 생명을 걸고
땀이여 새날이 온다
땀이여 해방이 온다

양길승 성수원 부검의 ▲견시

상당히 많은 의상이 있어 노수석군이 구타 등 외력에 의한 손상이 인정된다. 심장병의 증상이 없이 일상생활을 무난히 영위해온 노수석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심장의 이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가능성보다 더 큰 가능성은 구타와 최후탄 피폭, 감압적이고 공포적인 검거와 해산과정이 심폐기능의 손상을 강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노수석군의 경우 근본적인 사인 못지않게 당시의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사인이 될 수 있다.

보고를 했던 감시병사는 "경미한 외상", "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생긴 것" 등의 얘기는 보고자의 시선만을 전제했었다. 그러나 연

문에서는 이 부분만을 확대 보도했다. 또한 소견서에도 나온 직접적 사인인 심폐기능의 손상 이외에도 몸 곳곳에서 발견된 외상이 있어 노수석이 사망할 당시 전경들에게 구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길승 부검의가 밝힌 의뢰에 의해 생긴 구체적인 외상은 오른쪽 무릎 2군데 0.6*1.1cm의 압박상 마찰상 피부부상 상 삼원측 뒷팔 2군데 0.2*3cm 크기의 파하출혈 등 오른쪽 7*5cm 크기의 출혈(근육출혈 0.5cm 길이까지) 스킨트 3*2cm 출혈 등이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심폐소생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부검에 참가했던 의사들은 밝혔다.

고 노수석군과 관련한 선견면 모니커 보고 (4/3일차)

SBS	고 노수석군 관련한 보도는 심경사 결론을 내린 부검결과 이후 전혀 없어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집회와 계속 이어지고 경찰의 검거 진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보도하지 않음
MBC	판파취면 이전 총선의 쟁점 중 하나인 고 노수석군 사망사건을 축소보도해온 MBC는 이 날 뉴스에서도 대학생들의 항의시위를 마치고 단신으로 처리하면서 대학생들이 전경들을 발로 차는 장면을 2.3초동안 내보내 대학생들의 폭력성만을 부각.

이외에도 언론은 노군의 사건을 왜곡 보도하고 있다. 특히 노군이 죽은 당일에는 사인이 심장질환이었을 수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만을 보도함으로써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했다. 또 각종 일간지 역시 노군의 사건을 사해면 1.2차 기사로 실고 그 내용도 오묘가 많거나 심지어 확대 보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총선을 앞두고 언론의 왜곡·축소 보도가 관을 찼다. 이것은 단순히 언론만의 문제가 아닌 현 사회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은 그대들의 사명인 진실보도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다스릴 책임이 맡겨져 있다.

고 노수석군 사망 당시 상황

경찰 과잉진압이 사망의 근본원인

검거명령후, CCTV로 폭력진압 구경

지난 3월 29일(금) '대선자금 공개 촉구'와 관련한 인성 저지 및 국가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노수석(연세대 법학 2군)의 사망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30분 1만여명의 시위대원이 중랑구 출발해 종로공원에 이르자 경찰이 최후탄을 난사했다. 시위대원이 총로 57자폭으로 밀려날 당시 노군은 연세대 반대 학생들과 함께 있었으나 총로 57자폭에서 다시 진압이 시작될 때까지였다. 그 뒤 연세대문동장을 지나 을지로 방향으로 밀려가던 중 남기문(연세대 법학 1)군은 시위대원 속에서 노군을 만났다. 이때 노군은 "아까 맞았어"라고 2.3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또한 일미택(연세대 법학 1)군은 노군이 1분가량 뛰어다니다 "나 뛰었어"라고 하였고 다리를 휘둘러치는 등 매우 원한가워보였다고 말한다. 노군은 을지로 6가 출에서 "미안"을 말했다. 가게 같은데 들어갔다"고 하며 인도로

나갔던 순간 경찰의 기습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임군은 잡히고, 그 순간 임군은 노군이 잡히지 않도록 밀어주었다. 노군은 바로 대한문화사로 뛰어 들어갔다. 대한문화사에는 노군을 포함해 5명이 인제기 뒷편에 숨어있었다. 갑자기 노수석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아파, 주름진 귀"라고 호소하며 같이 있던 학생들이 노군의 팔과 다리를 주물렀는데 당시 노군의 팔과 다리는 아주 딱딱한 상태였고 극도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때 하이무게(연세대 사회과 2)군이 경련을 뿌리치고 대한문화사로 뛰어들었고 뒤따라온 사복체조가 기계 뒷편에서 노군을 포함한 학생들을 발견하고는 욕설을 퍼부으며 구타했다. 경정이 이들을 끌고나갈 당시 노군은 일어나지 못했다. 심은선(한양대 1)양 등 학생들은 끌려가며 노군이 위독하다고 호소하였으나 전경들이 이를 무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학생들이 끌려나간후 주인아주머니가 노군을 발견, 말을 걸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사무실 안에 숨어있던 한군이 밖으로 나와보니 노군이 거품을

뿜어 흘리고있었고 위독하다고 판단한 아주머니가 진압대장에게 "사람이 죽어간다.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면했다고 한다. 결국 주위사람들이 근처의 학생들을 불러왔고 이창호(한양대 기계공학과 2)군 등이 노군에게 인공호흡을 했으나 노군은 이미 몸을 가누지 못했고 중공이 들어갔다는 상태였다. 잠시 후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노군은 사망했다. 여러명의 증언에서 알수 있듯이 노군의 진압은 단순히 해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거를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한 현재 경찰은 연세대 기자실로 "상부 기관에서 전원 검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다"고 재보해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었다. 시위에 참석했던 많은 학생들은 자신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날 검거된 학생들은 전경들이 서로 "아, 나 0명 잡았다. 난 얼마나 잡았나?"며 자랑하는 모습이 동시리에게 기억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윤숙 기자



연 총궐기의 날'로 선정. 1만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연세대에서 종료, 을지로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편 4일(목) 진행할 예정이었던 장례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의 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사람들의 사회의 사과와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석이를 묻는 것은 수석이를

두번 죽이는 것이다"며 "억울하고 원통해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며 물문을 도했다. 노군의 아버지 노봉구씨는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고 정당한 사안규명을 위해 부검에 협조했으나 사실이 밝혀지기는 커녕 급성심장사라는 얼토당토 않는 결과를 발표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이 있어도 안이 풀리지 않음에겐 책임있는 사회 한

다 없고 심장사로 묻고거리는 모습을 보고 장례식의 무기한 연기를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장례식이 연기된 이날 연세대에 모인 7천여명의 학생들은 시내 곳곳에서 전경과 대치, 돌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청와대 앞 거리까지 진출을 진행했다.

대체위는 △김대통령의 사과 △내무장관, 교육부장관, 검찰총장, 인천 지휘령 임자 처벌 △백관련 해산 및 시위진압 장비 회수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요구하며 오는 19일(금)까지 노수석열사 부활기간을 설정하고 대정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한총련 의장 정명기군은 "이제 수석이는 한 학우가 아닌 열사로서 우리앞에 서게 될 것이다"며 백관련도 총궐기를 결의하고 있다.

노수석군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은 그 마지막으로 의했던 구호인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대학생동맹기자연합 공동기자단 황정원 기자



ORION 오리온전기는 한국 영상표시기술의 역사입니다

DAEWOO



..... "보는 것이 힘이다"



노트북PC를 활용LCD



컴퓨터용 모니터



음극TV용 화이트브라운관



백색의 TV용 PDP

초선명, 최절단로 다져가는 영상의 국가경쟁력-
오리온전기는 미래기술로 영상의 최강대국을 실현해갑니다.

보는 것, 보이는 것의 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금은 영상정보시대. 화이트 브라운관을 포함한 각종 컬러브라운관, 컴퓨터용 모니터, 그리고 평판표시제품의 LCD(액정디스플레이),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올 박막 FED(전계발광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영상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오리온전기는 한 발 앞선 영상 21세기를 세계에 소개합니다. 21세기의 영상을 더욱 선명하게 펼쳐갈 오리온전기-오리온전기에서 귀하의 미래도 선명하게 펼쳐십시오.

오리온전기

엄청난 의혹속의 대선자금

국민앞에 공개하고 법의 심판 받아야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정학로씨의 부정부패 사건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의혹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일개 부속실장'이 여대를 만지고 있을 때 대통령이 수제비만 먹고 있었느냐는 말은 이제 농담 아닌 농담이 된 지 오래다.

노태우씨는 "솔직히 쟤다"고 했고, 김종필 지면엔 총재는 "내가 옆에서 지켜봐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현재 여당의 대표인 김윤환씨조차도 "여대 여당 대통령"이 여권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주어진 만큼 김윤환 대통령도 대선자금을 받았을 것이다.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은 이런 돈을 들어 선거를 다시 한다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 이제 국민들은 김대통령이 한 말만 믿고 있지 않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나 받았나'를 확인하고 싶어할 뿐이다.

이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그간 각종 보도와 95년 당시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최소 3조 2천억원이라는 금액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즘 여러가지 증언이나 증거, 정학로씨 사건을 통해 대선자금의 실체가 그 배면을 벗고 있다

그렇다면 한총련이 계산한 3조 2천억원의 증가는 무엇인가?
먼저 김대통령은 선거 당시 공조자

거비용으로 6천억원, 사조직 선거비용으로 6천억원을 부렸다. 당시 김대통령의 공조자 거비용은 선거기간 중 모두 사치처에 1-2억 원 정도 지출했으며 막바지에는 3-4억원이 지출됐다고 한다. 이외에도 15개 시도에서 개최한 대선 출정식 비용 50억원과 12회의 후보자대, 정중동원비 등이 별도로 지출됐다는 얘기가 당국 기자로부터 나왔다. 또 신문광보, 텔레비전 등에 535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하며 이밖에 '영삼시계'나 '03회담' 등의

광우병

생활속에서

소들이 영국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광우병 열풍 때문에 수난을 겪고 있다. 광우병이란 소의 뇌척수액에서 발견되는 소가 이 병에 걸리면 갑자기 미친 듯이 포악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은 소의 동맥속 혈관에 중독하는 스크립스 바이러스 때문이다.

광우병의 여파로 영국정부는 1,100만 마리의 소를 모두 도살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 등의 일부 국가들이 영국산 쇠고기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광우병 파동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가 이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치사율 100%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영국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얼마전 미국에서 AIDS, 만성피로증후군 등과 함께 3대 미생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이 걸리면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되고 그동안 이 병은 걸린 환자나 사망자의 뇌를 조직검사하거나 부검하

는 과정에서 수십집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광우병 공포는 우리나라에도 퍼져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1명, 지난해 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문제의 관련, 지금까지 영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국내에 수입된 적이 전혀 없으나 광우병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입만 안한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닐 것 같다. 전문가에 의하면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인체에 직접기가 최장 30년에 이르러도 한다 또 유전자 때문에 수 십년전 영국에서 종자를 들여온 우리나라에서도 발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더구나 이미 환자가 발생한 상태에 와서야 수입금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 정부는 엄밀한 실사를 통해 광우병 공포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갖는 불안감을 씻어줘야 할 것이다.

박병수 기자

운영비는 포함시키지 않은 액수로 한다.

김대통령을 7대제법 중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제 상이 그려질 것이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90년 3월말 당시 당내 내분을 수습하고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3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노태우씨로부터 전달됐다고 한다. 또 14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밀월과 회동들 통해 수천억원이 건네졌으며 대법원으로 당선된 직후에는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1천 수백억원, 93년 1월 5일에는 정권인수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천억원의 돈을 받았다고 드러났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아직도 "대선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한다. 신한국당은 여전히 국민회의의 20억+0.5%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결백성을 강변하려 하지만 이미 당내에서조차 공개 요구의 움직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고 있는 대선자금에 총선 이후 신한국당 최대의 안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법상 허용치인 367억원의 4배가 넘는 돈을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비록 법시효기간인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입장에서 책임자인 김영삼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 처벌 이전에 먼저 정경정화를 패트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김주영 기자



폭력분부 아카데미상 수상

송근우

유럽의 신제국주의와 ASEM



1996년 3월 1-2일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ASEM)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아세안 7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및 베트남), 한국, 일본, 중국의 아시아 10개국과 유럽연합의 15개 회원국이 참여했다. 이 회의를 통해 양지역은 안정적인 민주발전, 핵확산의 금지, 환경보호, 빈곤퇴치 및 국제법과 예외 등 세계적인 사안들에서 협력하고, 상호간 시장을 개방하며,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제적인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원칙에 동의했다.

다음 회의는 1998년 런던에서 2000년에는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내에서는 현재 벌써 이 회의의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무작업에 들어갔고, 이 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의가 개최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94년 7월 유럽공동체가 소위 "새로운 아시아 전략" (Towards a new Asian Strategy)을 채택하면서 부터였다. 이 전략의 등장은 무엇보다도 아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측면과 유럽연합의 신탁과정을 통해 강력한 유럽이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배경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유럽연합과 아시아국가들과의 무역액은 1994년에 2500억 Ecu (미화 3125억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동일년도 무역액은 1800억 Ecu (미화 2300억달러)이다. 아시아는 EU의 전체 대 무역에서 1994년 23.2%를 차지하여 17.4%를 점유한 미국을 앞섰다. 중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합하여 13.9%인 것에 비하면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연 그보다 아시아가 EU의 가장 큰 무역 대상지역임을 알 수 있다. EU는 아시아가 머지않아 발전한 부문에서 전세계 주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통상의 하부구조 부문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유럽의 제품과 서비스 및 전문인력의 질이 탁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앞으로 아시아에서 그 수요가 급증하게 될 은행서비스, 에너지, 환경기술 및 수출장비 부문 등에서 유럽연합의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아시아 시장이 APEC의 출범과 함께 한때 유럽의 경쟁력으로서 더욱 깊숙이 침투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유럽인들을 몹시 좌절하게 만들었다. 이제 유럽인들이 ASEM을 통해 표현하는 바는 아시아 시장을 미국과 일본의 영향권으로부터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이고, 아시아에서 그들의 위치를 국제정치적으로 천명하는 의욕이다.

아시아를 유혹하기 위해서 유럽인들은 유럽내에 국경을 초월하여 마련된 단일 시장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아시아와의 경제관계에 의해 문

화교류, 즉 상호간 문화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집회위원회'는 1996년 1월 베니스에서 개최된 아시아의 지리, 정치 및 문화에 대한 세미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 유럽내부적으로는 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협력을 서두르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통이 고속전철의 제작 수주에 관한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유로트레인'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아시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반공과 시장경제이라는 미국의 유럽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서유럽연합의 기초가 놓여졌다.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이었는데, 1970년대에 들어 서유럽연합은 그동안 그들이 이루어온 고도 성장에 힘입어 세계시장에서 미국과의 경쟁관계에 몰입하고 정치적으로 독자 노선을 추구했다.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는 그들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워 대외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그들은 서유럽연합을 넘어 강력한 유럽연합을 지향하면서 EU를 성립시켰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NAFTA를 창설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더불어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APEC에 옮겼다. 즉, 미국은 EU와 APEC이어서 캐스텔 보드를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이제 ASEM을 통해 유럽인들은 미국의 이 전략의 효능을 의문시하고, 아시아가 유럽과 미국사이에서 주요 행위자가 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은 아시아의 행위방향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일치하도록 정치 경제는 물론 문화적인 측면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ASEM은 아시아인들에게 많은 파장을 부르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제무역 행위자로서의 아시아인의 정체성의 문제다. 정체성을 확립한 유럽과 협력하지 못한 아시아의 만반은 어떻게 귀결될까? 오늘날의 유럽이 있기 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원수관계를 유럽연합의 동맹자로 만들면서 유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한 수많은 유럽주의자들이 있었다. 아시아인들이 그들의 정체성 확립이 그들에게 주어진 캐스텔 보드를 세계사의 이성적인 방향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또한 중대한 의문은 ASEM이 자본주의 이해관계를 위한 아시아의 유럽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하는 일이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럽의 아시아에 대한 신적인 지배유산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양자간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ASEM과 더불어 환경보호, 인권보호 등 제반 사회·문화에서의 시민연대가 필수적이다.

노명환

(본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96 하게 영어연수 신청자 모집

1. 연수조건

- 연수장소: UC Berkeley
- 연수기간: 1996. 7. 10~8.23(6주간)
- (5주 수업 후 미국서부 및 하와이관광 포함)

2. 연수신청자 모집

-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 지원서 배부기간: '96. 4. 8(월)~4. 22(월)
- 지원서 배부처: 단과대학 교학과 및 각 학과장실

3. 소요경비

- 총 예상경비: 미화 \$4,810
- 경비내역: 수업료(문화여형경비 포함), 기숙사비, 의료보험료, 수속관리비(여권, 비자 발급 등 관련), 항공료 및 관광비용
- 단, 교재는 현지 반납후 후 별도 구입

4. 학점인정

- 연수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교의 '96학년도 제2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해외연수영어" 과목으로 포기함.
- 위 학점은 교양 및 자연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되 '96. 2학기 수강신청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3학점까지 인정함.

5. 지원서 접수

- 지원서 접수기간: '96. 4. 10(수)~4. 24(수)
- 지원서 접수처: 연구협력처(서울캠퍼스 본관 1층)

6. 기타

-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여권 및 비자발급 관련업무는 연구협력처에서 일괄 처리함.
- 연수관련 문의: 연구협력처 연구 협력과 ☎ 411-4387, 4040

1996. 4.

한국의국어대학교 연구협력처장

대학 이등 병무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용인캠퍼스 재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병역문제 상담과 안내를 위하여 전문요원 4~5명으로 구성된 "대학 이등 병무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일시: 1996. 5. 16(목) 10:00~16:30

○ 장소: 용인캠퍼스 학생회관 601

○ 병무청 컴퓨터를 이용 설치하여 정확한 병무상담을 합니다.

· 본적이나 주소가 전국 어디든지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하면 "입영 예정일자" 등 현재의 병역처분 상태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영권" 등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 "입영권", "입영 기일연기권" 등 각종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접수하며, 지원병(공·해군, 어학병, 학사정교등)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구비서류 미리 준비시 가능)도 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과정에 대한 각종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징병검사, 현역입영(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재선검정사등 병역의무 이행과정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병역 고충민원도 접수처리 합니다.

· 병역관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병역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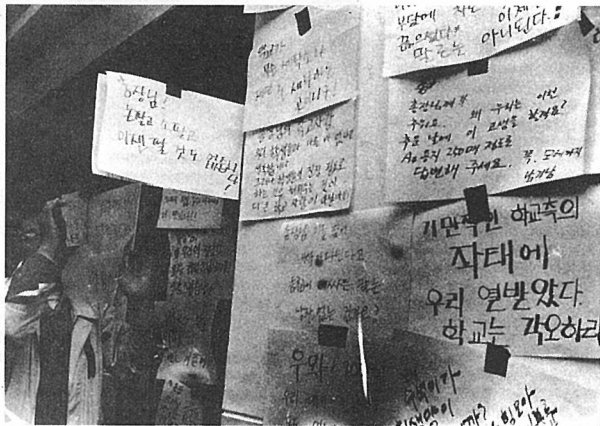
수원지방병무청장

■ 등록금 그 뿌리를 알자 — ⑤ 학생지도비

명분 약한 학생지도비... 학생자치비로 전환돼야 3억5000만원, 학생처·단과대학 등에 지급돼

실질적 소비와 맞먹는 3억 5000만원이란 돈이 학생지도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쓰이고 있다. '학생지도'를 위해 교육청에게 지급되는 제 잡비라는 학생지도비는 그 집행 내역이 확실치 않게 알려져 있지 않다. 학생경비로서 학생들을 위해 쓰여져야 함에도 고·직원들의 업무수행비로 쓰여지는 학생지도비를 제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지도비의 쓰임을 추적해 보고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편지자



위 사진은 지난 3월(수) '이론·향산 1인3천 공동 우물'에 대한 대학 당국의 무성의한 답변에 항의하는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출성실에 붙인 대자보다.

"학생경비 항목에 학생지도비라고 바깥에 나와있으나 사실상 그 집행을 알 수 없고 학생처에 붙여 봐도 대충 얼버무리고 그래서 비리가 있구나 싶었던거죠"라고 작년 10대 용인캠퍼스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임상은(중학·이법, 96년) 군은 말한다.

이렇게 시작된 학생지도비 파문은 서울캠퍼스 도서관에 '학생지도·과장 학생지도비 유용'이란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리면서 학생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지 만 기말고사와 방학이 맞고 그러는 등 두의 열거수에 묻혀졌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후에 음담의 댓가를 치러야 했다.

학생지도비 기사를 특종인과 결부시켜 게재한 이 카사 학생기자 송환원(경북·신광 후학)군이 4주간 유기징역을 받았다. 그토록 민감했던 학생지도비의 실체는 무엇인지 본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킬레스크건으로 부당한 학생지도비

사학기관 재무회계 관련 책자를 살펴보면 학생지도비는 '학생지도'를 위해 교육청에게 지급되는 지도비 등 제 잡비'라고 적혀 있다. 작년 자금운용예산서를 보면 학생지도비 항목에 책정된 돈은 3억 5000만원이었다. 이돈은 94년도에 학생처 및 단과대학 2억원, 6개

대학원 등 6천만원, 학생지도비를 위한 교수회의, 학과장 회의 등이 5천만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고 시반 등이 4천만원 등으로 나눠 책정, 집행됐다.

한편 올해의 자금운용예산서를 살펴보면 학생지도비가 항목에서 사라지고 신문방송비, 보건재건비, 행사지원금 등이 학생지도비로 15억4500만원이 합쳐져 있다.

이와관련, 이상우 예산주임은 "올해부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이 적용돼 회계상 학생지도비를 여타의 학생경비와 합쳐 학생지원비로 편성하게 됐다"라며 "우리학교의 예산은 투명성이 보장돼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비전 회계규칙에 따라 학생지도비는 '교내신문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전, 학생서클보조, 학생행사 보조 등 학생지원'을 위해 지출되는 제 비용'이라는 내용으로 학생지원비로 흡수 통합되었다.

직원·교수에게 집행되는 학생지도비

*학생지도비는 학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처에 가장 많이 책정되며, 각 단대는 학생처에서 맡아서 배분하고 있다"라며 학생지도비의 사용내역에 결산이 나와야 할 수 있다고 예산주임은 말한다. 학생처와 단과대학에 배분된 2억원 상당의 94년도 학생지도비는 어디에 쓰였는지 묻는다.

이에 대해 단대 업무부 추진하는 교수와 직원들 "학생지도비는 실제로 교수·학생·직원 등 학원의 3주체가 쓰는 운영경비인데 학생지도비라는 명칭때문에 어색할 때가 많다"라며 단과대학 주체 회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된다고 얘기했다. 각 단대에 배정되는 돈은 해당 장원에 의해 조정되는 편인 2~3백만원임이 사실이다. 이론대 등 정원이 작은 단대는 100만원정도가 책정된다고 한다.

"단과대학에 배분되는 학생지도비는 학과의 결제를 통해 지출됨으로 그 내역이 확실하며 2000만원으로 단과대학 업무를 꾸려나가기엔 부족한 면도 없다"라고 얘기했다. 이처럼 단과대학에 배분되는 돈이 서울·용인캠퍼스 12개 단대에 평균 2000만원씩 약 2400만원이 배분된다고 하면 나머지 1억 7,600만원의 항목은 학생처에서 썼을 수 밖에 없다.

학생처 지도비 1억 7000여 만원

"학생지도비는 학생활동과정에 사용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뭘 얘기해달라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사용내역 하나하나를 밝히긴 힘들다. 총학생회 사무실과 격리된 조로 주어진 돈도 학생지도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학생처담당관 이정철 씨의 말이다. 작년 서울·용인 총학생회가 학생지도비 문제로 항간을 떠돌아다녔던 탓인지 학생지도비를 취재하려 왔다는 얘기에 직원은 별로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95년도에 부임한 홍순남 학생처장은 "학생지도비를 사비로 유용한다는 건 믿고 싶지 않다"며 학생처에 물 달고 1년이 돼가지만 그런걸 본적도 없고 오히려 개인 연구비까지 써서 학생처를 꾸리고 있다"라고 말하며 반박했다. 학생처 직원들은 아니냐며 푸근이 있다.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에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매년 출성이라는 명목으로 따라 나서는 일이 학생처 직원의 업무중의 하나이다. "학생처 근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지도비가 왜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작년 총학생회가 했던 말들이 100% 틀린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실 이름을 직접 거론해 '학생지도'라면서 인신공격적으로 맞선 것은 너무 심했죠"라고 말하며 직원일을 반박했다.

학생지도비, 자치 활동비로 전환해야

학생지도비는 교수 및 직원들에게 학생경비에서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우리 학교의 열악한 보건재건비, 실험실비 등 여타의 학생경비로 전환하든지 학생자치활동 지원비로서 변모해야 할 것이다.

학생지도비 명목으로 교수 및 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사실상 교육원들의 업무보조비 등의 성격이 되고 충당되고 있다. 정식 업무에 필요한 돈은 교·직원 인건비와 새로운 항목의 수업을 신설해 지급하고 점차 사용이 늘고 있는 학생지도비는 폐지하고 학생경비로 흡수된 사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재경 기자

외대와 나 교원학습은 시대적 요구

중국인은 모두 한국은 어서이와 내마리 용 중의 한 마라라고 알고 있으며, 중국인은 통상 한국의 경제는 급성정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인이 도출해낸 결론은 한국은 교육을 아주 중시한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수교 이전부터 외대에서 북경대학의 교수와 강의를 하고 있었고, 북경대학에서의 내의 강의시간에 의해 졸업생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외대의 명성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다. 그들의 학습태도는 나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다. 현재 나는 외대의 강단에 강의하고 있고, 이것 또한 나와 외대의 깊은 인연이라 생각한다.



진 여(陳如)
(연수원 객좌교수)

나는 95년 8월에 외대에 왔으며 현재 외대 어학연수원 중국어과에 재직하고 있다. 막혔을 때 어학연수원은 한국에서 세계의 모든 언어를 공부하는 곳이라 들었다. 외대 어학연수원은 실제로 국가 공무원과 외국어 구사능력의 고강을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의 문화적 소양도 배양시키고 있다. 이미 39기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이르렀으며 매년간에 걸쳐 정부 각 부서의 각종 외국어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양성했다.

최근 외대의 각급 지도층에서는 교육 개혁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상은 더욱 빠르고 더욱 우수

하게 인재를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교수로서 원장, 주임의 영도하에서 부단히 내 스스로의 의무를 위해 일하고 있다. 나는 학생들의 요구가 고강됨에 따라 학습시간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교수의 집중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의 초빙, 교수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결합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근거하여 교수들을 초빙하고 학생들의 의견 개진을 통한 학습방법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의 언어 습득에 대한 열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학연수원을 더욱 더 강화하고 그러한 능력에 단시간 내에 습득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아주 뛰어난 방법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런 학계에 나는 외대 용인 캠퍼스에서 중국어 부전공 강의를 맡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용인캠퍼스는 마치 공원과 같다. 소음이 없고 공기는 아주 신선하다. 사립의 미용을 아주 편안하게 해준다. 그곳의 학생들은 비교적 나이가 어려서 아주 활발하고 생기가 충만해 있다. 나는 그들을 만난 것을 기쁘게 하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외대의 무한한 번영을 느끼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와 외대의 학생들은 반대에 걸쳐 돈독한 우의와 아주 좋은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북경대와 외대의 활발한 문화교류에 공헌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것은 또한 시대적 요구에

휴산의 음음

○-한창 뜨고 있는 교육정책화 보루를 대안자금공급을 위해 투쟁의 선봉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한 휴산이 자기 눈에 이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크로니클자 알아보니, 학우들이 전경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안맞았다고 보도되고, 100명이 모여 있는데도 3~4명이 모여있다고 보도한 것에 놀랐다는 데... 기성언론을 생사만 잠지 마시라.

(별)

○-돈을쳐들 손에 꼭 쥐고 울고 있는 어느 휴산이 있는데... 크로니클자가 알아본즉, 터무니없이 오른 등록금을 겨우 마련해

김재경 기자



등록을 고려하니 대학당국에서 등록금이 저조하다며 미등록자를 시킨다더라

학교 어르신네들! 작년까지만 해도 등록금 잘 받더니 올해들어 학식만 강조하면서 교육적 태도를 저버린 정도도 학식이 그렇게 중요할까?

(별)

○-4월 휴산이 가까워짐에 따라 문묘도 표를 사는 금권상거래까지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그런데 이런 금권상거래가 정

당한 것이기도 한다. 교수들은 학교발전에 대해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모든 과목 교수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어떠한 훈련과 방법을 채택하여 각 과목간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이끌어 낼 것인가? 어떠한 방법적 대안을 제시하여 상호연계속의 공통된 작업을 이끌어 낼 것인가? 나는 각 과목 간의 밀접한 협력 관계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것들의 상호배합과 전체에 걸친 상호협조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총괄하면 나는 외대의 어학 프로그램의 지지하며 외대의 발전과 더 나아가 이런 모든 외대의 노력들이 유용한 것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런 학계에 나는 외대 용인 캠퍼스에서 중국어 부전공 강의를 맡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용인캠퍼스는 마치 공원과 같다. 소음이 없고 공기는 아주 신선하다. 사립의 미용을 아주 편안하게 해준다. 그곳의 학생들은 비교적 나이가 어려서 아주 활발하고 생기가 충만해 있다. 나는 그들을 만난 것을 기쁘게 하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외대의 무한한 번영을 느끼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와 외대의 학생들은 반대에 걸쳐 돈독한 우의와 아주 좋은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북경대와 외대의 활발한 문화교류에 공헌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것은 또한 시대적 요구에

양치기 언론

○-알려진 교(교) 교수서 학우가 경찰의 과잉폭력집압에 의해 사망했다는... 정부나 언론은 한결같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다 눈앞에서 크로니클자 그들의 광풍에 분노한 남야, 열대 해운들은 은폐와 조작책에 걸리지... 국민의 심안이 오기전에 사안일 명하고 공개 사와 하십시오!

(별)

○-4월 휴산이 가까워짐에 따라 문묘도 표를 사는 금권상거래까지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그런데 이런 금권상거래가 정

김재경 기자

비둘기철판

이문별

□ **등문회 합시다**

· 대우 영남도 등문회 합시다.
때: 4월 12일(금) 늦은 5시
곳: 대학원 로비

(영남도 등문회)

· 창당도 등문회 합시다.
때: 4월 10일(수) 늦은 5시
곳: 분수대

(창당도 등문회)

· 경검도 등문회 합시다.
때: 4월 9일(화)
곳: 도서관 앞 노인정 벤치

(경검도 등문회)

· 대성 등문 모임이 있습니다.

때: 4월 10일(수) 늦은 5시
곳: 대학원 1층 로비

(대성 등문회)

· 학생도 등문회 합시다.
때: 4월 12일(금) 늦은 5시 30분
곳: 대학원 로비

(학생도 등문회)

· 광주 문성도 등문 모임을 갖습니다.
때: 4월 12일(금) 늦은 5시
곳: 노인정

(문성도 등문회)

□ **축하합니다**

· 91학번 육정현군이 PASA(행정학과 축구모임)의 회장으로서 당선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행정학과 학생회)

김성은양의 지난 2월(화)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는 일 열심히 도전하세요. 도전없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나중에 술자리에서 봅시다.

(일본어과 선배)

왕산골

□ **알립니다**

· 환경학과에서 환경문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재: 환경위기 사태를 살아가는 지혜 강사: 교회 환경연구소 김영라 소장
때: 4월 10일(수) 늦은 1시 30분
곳: 신강의동 5407호

(환경학과)

· 지난 4월 1일(월) 본교 용인캠퍼스의 아늑한 휴식 공간인 명수당 잔디밭에 한 학생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화재가 발생. 자칫 큰 피해를 일으킬 뻔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외대인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씩만 주의하십시오.

(충무과)

· 서울 세종도 등문회 합시다.
때: 4월 10일(수) 늦은 5시 30분
곳: 학관 등나무

(세종도 등문회)

· S·F·C 모임입니다.
때: 매주 목요일 늦은 6시
곳: 신강의동 211

(S·F·C)

· 통일문제 연구원 '겨레사랑'이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 통합하여 합니다. 통일, 문화, 사회에 관심있는 모든 왕산 학우들 함께 합시다.
연락처: 학관 3층 4450

(겨레사랑)

· 마산·창원 학우회 합시다.
때: 4월 9일(수) 늦은 5시 30분
곳: 학회관 광명

(마산·창원 학우회)

· Hike에 외대 방이 있습니다. (GO HIKES)외대 메이트들 모두 모두 모임입니다. 뜨끈뜨끈한 젊은 이야기를 나눕시다. 시험기간에 엄청난 이익이 돌아다니는 후문.

(HUES)

□ **축하합니다**

· 동구어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4월 9일(화) 신승주(체코, 96)
4월 12일(금) 박예정(폴란드, 96)
4월 13일(토) 이규현(루마니아, 95)
김승우(체코, 92)

(동구어대 학생회)

· 외대인 여러분 지난 주 계속되는 집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몸짓이 이 사회를 바르게 보는 힘임을 기억합니다.

(헌론 협의회)

·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론·향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론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향산 학생기자실 2층 (0335)30-4112

창간 41

창간 41돌을 맞아 본보는 지난 1월29일(월)부터 2월16일(금)까지 외대학보에 대한 독자의식조사를 시행했다. 결과는 신문에서 읽히는 신문으로 될 줄 한해의 목표로 삼고 독자와 함께 하는 외대학보이고자 한다. 겨울방학기간의 설문결과를 독자 여러분께 공개한다.

편집자

I. 제목

외대학보에 대한 독자(외대인) 의식조사

II. 조사목적

서울, 용인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대학보에 대한 전반적인 독자들의 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대주제: 외대학보 기사에 대하여 독자들이 얼마나 신뢰성을 느끼고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첫째, 외대학보에 대한 독자들 전반적인 관심도 측정 둘째, 외대학보 기사에 대해 독자들이 느끼는 선호도 측정 셋째, 외대학보의 개선사항 할 점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넷째, 외대학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독자들의 제언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외대학보에 대한 독자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조사 결과를 조사하여 외대학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III. 조사방법

본 설문은 서울, 용인 캠퍼스 학생을 대상으로 518부를 배포하여 최종 분석에 449부를 사용하였다. 응답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이중 응답이 불안정한 69부를 본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본구성의 비율은 남(69.5%), 여(30.5%)이며 학년별 구성 비율은 1학년(17.2%), 2학년(24.4%), 3학년(28.2%), 4학년(30.2%)이며 캠퍼스별 구성 비율은 서울(69.6%), 용인(30.4%)이며 성향별 구성 비율은 진보적(45%), 보수적(27.5%), 모르겠음(27.5%)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에 있어서 기본 베이스를 성별, 학년별, 캠퍼스별, 성향별의 각각 문항에 대한 빈도를 측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카이제곱법을 사용하였다.

IV. 조사결과

외대학보의 열독정도는 성별, 학년별, 캠퍼스별, 성향별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항상 외대학보를 즐겨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대학보를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30분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외대인들 매체중의 선호도는 외대학보가 80.4%를 차지해 타 언론매체보다 단연 우위를 보였다. 기사에 대한 선호도는 학보보다가사, 오락, 보도기사, 생활 문화기사의 확충을 바라고 있으며, 고정 칼럼에는 크로니클과 백지 대자보를 독자들이 즐겨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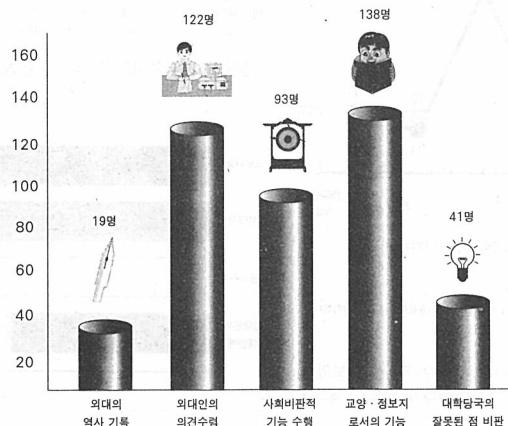
(설문조사·분석: 정재규, 성낙철(경영정보대학원))

외대학보 나올때마다 항상 본다... 54%

외대학보 기능, 교양정보지·외대인의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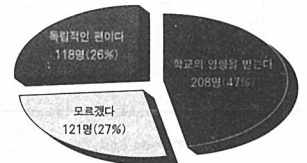
<질문3> 학보의 중요한 기능

독자들이 외대학보에서 캐내고 싶어하는 보충은 교양·정보, 또한 외대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바래도 28%나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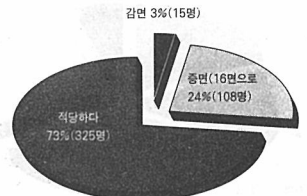
<질문5> 학보의 독립성 정도는

외대학보는 독립적인가, 아니면 학교의 영향을 받는가란 질문에 약 과반수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대답했다. 이 결과는 그간 편집자들과의 긴밀한 학생기자들과 대학당국간의 마찰이 제작중지·호의발간등으로 의화했던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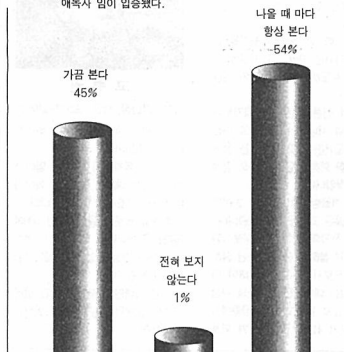
<질문6> 학보 만수무관 12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현재 발행되고 있는 주간 12면에 거의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면으로 늘여자는 의견도 24%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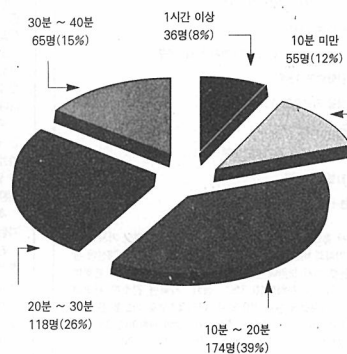
<질문1> 학보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외대학보는 접하는 신문일까, 읽히는 신문일까.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학보 '매독자' 임이 입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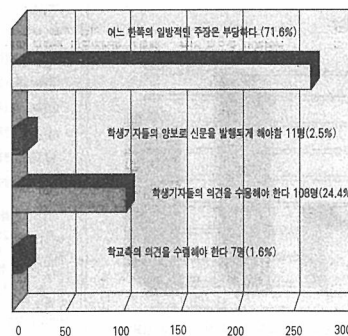
<질문2> 학보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12면에 해당하는 학보를 읽는 시간은? 65%의 학생들이 10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을 소요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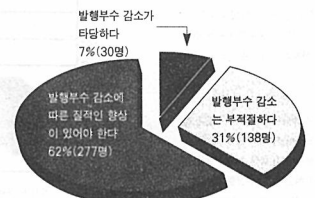
<질문4> 학보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학당국과 학생측의 의견이 대립되던가? '양측의 토론과 대화를 통한 합의를 통해 이견을 최대한 절충해야 한다'고 71.6%의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다.



<질문7> 학보 발행 부수 감소에 대한 견해는

학보 발행부수가 2만부에서 1만5천부로 감소된 것과 관련, 감소에 따른 질적인 향상(종이질 향상이나 칼라)이 뒤따라야한다는 의견이 62%로 지배적이었다. 반면 편집자가 타당하다는 의견은 7%에 머물렀다.



교육 재정의 확보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7천학우 청년선언문

역사의 역동기.
한 세기가 저물며 새로운 시대가 태동하는 새벽녘,
한 나라를 쥐고 흔들던 권력자들이 준엄한 심판대에 서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왔던
역사를, 정의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합은 무엇인가? 깊은 어둠에 있는가?
그것은 멀리 있지 않다.
조국의 미래와 사회의 앞날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대학공동체.
민족의 인제가 되어 통일조국의 새날을 열어 갈 청년학생들.
우리가 바로 시대의 지성이고, 희망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대학을 바로 세우고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울 것을 재차하며
청/년/선/언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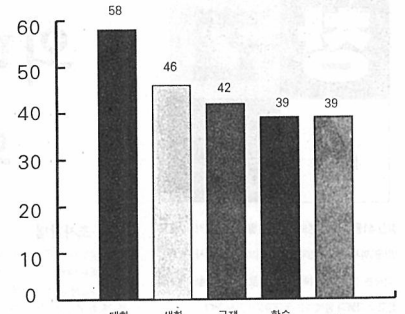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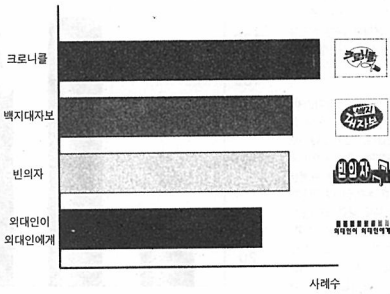
왕산 9백명의 학생들은 이땅 청년이기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17대 왕산 총 학생회
합입준 합조치 합사임을 실현하는 언론협의회

<질문11> 학보에서 더 보충했으면 하는 기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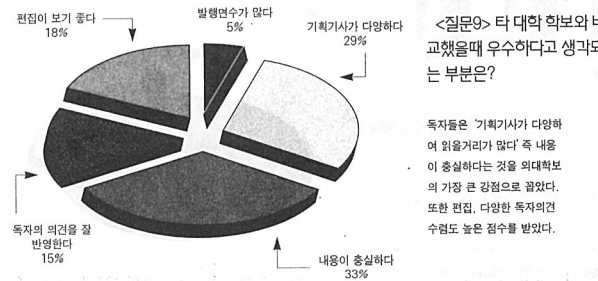
	1순위		2순위		3순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1) 대학 보도 기사	58	13.9	36	8.9	18	4.7
2) 학술 기획기사	39	9.4	28	6.9	9	2.3
3) 학술 보도기사	16	3.8	20	4.9	19	4.9
4) 생활 문화기사	46	11.0	52	12.8	34	8.8
5) 문화기사	30	7.0	41	9.7	36	8.8
6) 사회 보도기사	18	4.3	19	4.7	27	7.0
7) 사회 기획기사	27	6.5	27	6.7	35	9.0
8) 대학 기획기사	26	6.2	47	11.6	29	7.5
9) 광고(비밀기밀판)	10	2.4	10	2.5	11	2.8
10) 취미 관련기사	33	7.9	30	7.4	46	11.9
11) 만화&만평	28	6.7	11	2.7	14	3.6
12) 국제기사	42	10.1	37	9.1	49	12.7
13) 사설	3	0.7	3	0.7	4	1.0
14) 칼럼	14	3.4	18	4.4	20	5.2
15) 독자란	18	4.3	19	4.7	39	10.1
전 체	417	100.0	406	100.0	387	100.0

<질문12> 학보중 가장 즐겨 읽는 고정 칼럼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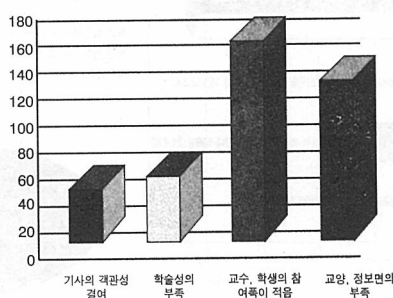
<질문8> 타 대학 학보와 비교했을 때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학생들은 타 대학교 소식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학보가 '비판'에만 머물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미흡했다는 학생들의 지적이 두번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질문10> 타 대학 학보와 비교했을 때 미흡한 부분은?

타 대학 학보와 비교했을 때 외대 학보는 교수·학생들의 참여, 교양·정보부분에서 열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교수와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이 모색함과 아울러 실생활에 유용히 쓰일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96년 한해동안 외대학보에 바라는 점

설문지 총 518부 중 323부 (답안 기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격려의 글-116부
 자주적인 학보(학보의 독립성)가 되기를-46부
 다양한 의견 수렴의 창구를 마련했으면-28부
 객관성을 중요시 했으면-28부
 학내 민주화(계단 학내 문제)에 관심을 더 가져 주길-16부
 정보 교환권을 보완했으면-13부
 대학 신문다운 특성을 지녔으면-11부
 발행이 중단되지 않게 하기를-11부
 사회적인 문제에 좀 더 비중을 두었으면-8부
 문화적인 면을 보완했으면-6부
 전문성을 살렸으면-5부

이외에도 학내행사 홍보부분의 보완에 관하여(0.9%), 국제면의 기사 신설에 관하여(1.2%), 기사의 비평능력 향상에 관하여(1.2%), 편집의 개선에 관하여(0.6%), 학술관련 기사 보완에 관하여(0.6%), 기사의 정확성에 관하여(0.3%), 발행부수 감소에 관하여(0.3%), 정치·사회면 감소에 관하여(0.3%), 기사 전달의 신속성에 관하여(0.3%), 단과대학별 학보를 분산 배포 하는 것에 관하여(0.3%), 연재 기사를 중단 하는 것에 관하여(0.3%), 전 일제에도 학보를 배포하는 문제에 관하여(0.3%) 등의 의견이 있었다.

“외대인의 숨결이 담긴 대중신문으로”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가 창간 41돌을 맞았습니다. 모진 종파에도 이렇듯 않고 독자의 '눈과 귀'로서 충실하고자 했던 4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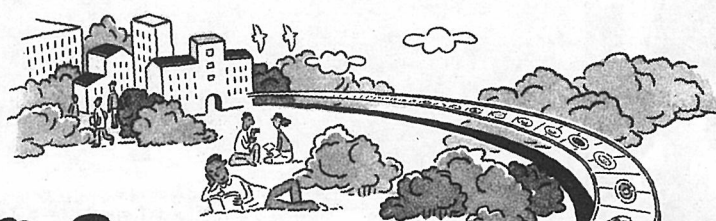
고 병 긴

《본보 편집장, 서양·포르투갈어》
 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의식을 알아보고자 하고 결단내리고 인 손을 녹여가며 독자의식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흔쾌히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500여 독자와 만나서 외대학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외대인의 숨결이 담긴 설문결과를 토대로 학보는 거듭 발전을 외대학보가 41년의 맥을 잇기 위해

내가 만약 LG산전의 사장이 된다면...



S.D. 신



“학교주변 모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전자동회전시스템을 만들겠어요.”

산전이려면 가능합니다.
 LG산전의 기술이 편리하고 멋진 생활을 만들어 갑니다.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한 아이디어는 무궁무진 합니다.
 작은 아이디어를 큰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 바로 우리 LG 산업을 전기-전자 산업을 이끌어 온 LG산전의 기술입니다.
 엘라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판매기 등 보다 편리한 생활을 창조하는 친근한 제품에서 고저압기기, 자동화고, 공장자동화 등 산업을 움직이는 중추에 이르기까지- LG산전의 기술로 우리 생활이 더욱 멋지고 편리해 갑니다.

- 전력기기 분야 사업** : 전압기기, 변전기기, 초고압설비, 대용량발전시스템 등
- 발달설비 사업** : 엘라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환기공기 등
- 제어기기 사업** : PLC, 인버터, 모터, CNC, 초음파세척기, 센서장치 등
- 자동화 시스템 사업** : 자동화시스템, 반송시스템, 물류시스템, 분산제어시스템 등
- 에스 산악기 사업** : 자동판매기, 소매기, 티벳자동판매기, 차량정비기기, 전용공구 등



미등록등 제적자 188명

대학당국의 구제방안 요구돼

본교 학칙과는 미등록제적자 및 휴학기간 초과자 등 총 188명의 제적자를 최종 확정했다.

1차등록기간 이후 대학당국은 3월 6일(수)부터 22일(금)까지 2차 등록기간이었으나 그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전보를

보냈다. 그후 25일(월)부터 3일간 3차등록에 대한 4월 1일(월)까지 등록을 받았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이 총 188명인 것이다.

학칙과 주된 순환순위는 '학생들이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 것이며 재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로 더 이상 구제방안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이규희(동양·일본어4)안은 '대학당국이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라며 '지난해 2학기 2번의 1선에 등록한 경험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대, 해오름식 및 정기총회

새내기 한마당 자리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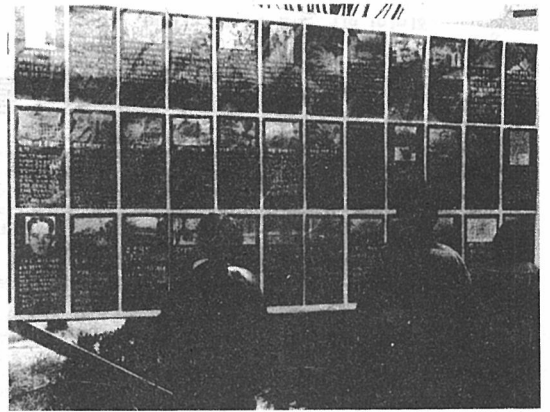
제1대 학생회 공식출발을 선포하는 장으로 이뤄졌던 공대 학생회 해오름식 및 정기총회가 지난 2일(월)부터 3일(수)까지 양일간 약 4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대 강당·노천극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해오름식 첫날은 새내기와 함께 공대 학생회를 출발한다는 취지하에 새내기 한마당이 개최됐다. 가요제 형식으로 열린 새내기 한마당에서는 공대 5개학과 새내기들의 과별 합창 및 새내기 정기자랑으로 진행됐다.

정기총회에서는 새내기들과 함께 공대 학생회를 출발한다는 취지하에 새내기 한마당이 개최됐다. 가요제 형식으로 열린 새내기 한마당에서는 공대 5개학과 새내기들의 과별 합창 및 새내기 정기자랑으로 진행됐다.

△방송정보학과 △화사사업보고 △간부수소순으로 함께 진행한 후 '노수석 학생 주모시 및 김영삼 경관 규탄을 위한 7천학생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와 관련 학생회장 문진석(컴퓨터공학4) 군은 "공대학생회가 작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의 사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리라 기대" 앞으로 공대 7백여명이 언제나 강부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로에 대한 끈끈한 사랑으로 형성된 가족 학생회가 됐으면 한다"라는 바램을 말했다.



4·3을 기리며...

제주 4·3항쟁 추모 사진전이 서울캠퍼스 북문광장에서 제주항쟁추모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생생한 현장사진들로 구성돼 지나가는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제주 4·3항쟁 추모 사진전이 서울캠퍼스 북문광장에서 제주항쟁추모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생생한 현장사진들로 구성돼 지나가는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모의월드컵, 중국어과 우승

지역적 차원으로 부상

'2003년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의 열의를 담아내자'라는 취지로 지난 4일(목)까지 8일간의 열전을 벌인 제15회 모의월드컵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마지막 결승전을 치른 영어과와 중국어과의 경기에서는 중국어과가 2대 0으로 승리해 우승의 영광을 안았으며, 이 경기에서 결승골 두 골을 넣어 헤르츠를 기록한 조영현(동양·중국어)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8강까지 오른 김건식(서양·서반어1) 군은 다섯 골을 성공시켜 득점왕에 올랐으며 이상복(동양·아랍) 군에게는 신인상이다. 응원세를 한껏 펼친 영어과 육과에게는 단체상이 돌아갔다.

올해 모의월드컵은 각학과, 각 단위의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낸 장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문종 주인의 참여가 두드러져 모의월드컵의 위상이 지역적 차원으로 한층

높아졌다. 모의월드컵을 준비한 축구부 주장 박진우(법·법학) 군은 "참가한 모든 과의 호응이 아주 좋았다. 이문종 주민들도 많은 성원을 보내 주었다. 하지만, 노수석군의 사랑과 축구열정이 겹쳐 보다 특별한 연대를 이루지 못해 아쉽다"라며 "내년에도 의대내 최대 행사로서 모의월드컵이 멋있게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의월드컵을 준비한 축구부 주장 박진우(법·법학) 군은 "참가한 모든 과의 호응이 아주 좋았다. 이문종 주민들도 많은 성원을 보내 주었다. 하지만, 노수석군의 사랑과 축구열정이 겹쳐 보다 특별한 연대를 이루지 못해 아쉽다"라며 "내년에도 의대내 최대 행사로서 모의월드컵이 멋있게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적과, 증명서 자동발급기 설치

시험운영의 활성화 방안

서울캠퍼스 학적과는 각종 증명서 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지난 2일(월)부터 시험개시했다. 이 증명서 자동발급기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화면상의 버튼의 중앙부분을 건드려 화면의 메시지에 학번·증명서종류·주민등록번호·발급내수 등을 선택한 후 화면에서 요구한 수수료를 넣으면 된다.

80년대 이전 학번의 국·영문

성적증명서는 발급이 안되며 학적과 발급장구를 이용해 한다.

학적과 주된 순환순위는 "학과 기동한 시험가동을 해본후 다문화기부로 완전자동화할 것"이라며 "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보다 학·영문 증명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밝혔다. 현재 설치된 자동발급기에서는 서울·영문인 함해서 대학 20여종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온누리 한의학 공개강좌 개최

6월까지 계속 진행 예정

온누리 수속증은 지난 3월 둘째 주부터 오는 6월 하계방학까지 한의학 공개강좌를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신청자의 211호에서 연다.

이달부터 하요일·수요일 양일로 나뉘어 기초·중급강좌로 병행되는 이번 강좌는 중앙혈학기초·음양오행·수족침·한방 응급처치

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온누리수속증 회장은 "동아리에 대한 대학원의 홍보 및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학습으로 대한 자기치료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 싶다"라며 "개최의의를 밝혔다."

이와 관련 학적과(동·태국) 교양은 "준비하는데 재정적인 부분에서 가장 힘들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장애인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바램을 말했다.

한편 이번 이틀첫 수속증 전역은 재활원 기금 마련에 쓰인다.

(주간일정표)				
4.8(월)	4.9(화)	4.10(수)	4.11(목)	4.12(금)
경원학과 정기총회	서울 정기총회 및 해오름식 서울 시청각실 (대학원사) 영화상영	서울권 동맹투입 총회	제15대 총선	
수강신청 취소기간-일사부불기간				
해강면시				
수강신청과 이틀첫				



□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정열씨를 만나

"노조를 활성화하는 게 올 한해 목표입니다"



"보수도 없는 데다 자칫 하면 한국인이다"며 만류하던 아내와 직정(7)을 뿌리치고 현재 본교 직원 노동조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열씨.

검붉은 얼굴에 털털한 미소를 가진 박위원장은 서울캠퍼스와 용인캠퍼스를 오가는 통근 버스를 운전하는 직원이다. 1년 1대를 한 기종의 아버지이며,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딸 자에게 열을 올리기도 한다.

외대를 일터로 잡은 지 어느덧 스물 두해가 되었다는 박위원장은 요즘 특히 정신없이 바쁘다. 대학 당국과 노조가 임금 협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정기적으로 협상을 통해 교직원 임금의 결정을

다. 대학당국 측에서 임금 올리라는 일이 그리 달가울지 않고, 이에 박위원장은 조금이라도 나은 근로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 이제 자칫 서부 만능과 계산하느라 두렵거나 신장이 쏠린다고 한다.

현재는 노조에 속한 안과 대학 당국측에서 올린 안을 놓고 서로 줄줄이다.

협상이 잘 되어가는 질문에 박위원장은 "대학 당국과 밀고 당기기도 힘들지만 직원들의 노조에 대한 무관심이 일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애로점을 말했다. 87년 설립 당시 95%에 달하던 직원의 노조 참여율이 지금은 50%도 되지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 대다수의 사직 직원들이 노조를 탈퇴한 상태다.

"노조를 활성화 하는 것이 올해 사업 목표"라는 박위원장은 "현재 노조원 중 사직직 노동자의 수가 서너명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사직직 교직원들이 대부분 자신이 노동자라는 인식이 없어 노조를 노조가 아니라 다른 교직원들에 대해 일종의 우

월 의식을 갖고 있다"라면서 "이런 사직직 노동자들의 잘못된 의식을 교육할 통해 전환시키고 이들을 노조원으로 만드는 것이 큰 과제"라며 각정당하는 표정을 띄었다.

"박위원장은 "교직원들의 유대를 위해 일 년에 한번씩 가을에 아우회를 갖는다"며 이번 아우회는 '외대 4백여 교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라며 씩씩한 표정으로 웃었다.

상근 노조원도 아닌 상황에서 통근 버스를 운행하며 노조일하지 하는 것이 힘들 텐데라는 물음에 박위원장은 "일은 고지지만, 그래도 우리 조합원들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 보람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노조는 노동자가 주인인 단체다. 노조 사무실에 설치된 노조 등록, 교직원 현황판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힘든 여건에서도 열심히 하는 박위원장의 노력이 힘을 얻어 앞으로의 노조가 힘차게 바르시길 기대해 본다.

고영진 기자

한국인의 무한대지, 그대에게 (1) 독도와 안동복면



* 안동복면 (조각품)
조선시대 민간(교과) 수종 22년 일어난 독도침략에 항쟁한 사실들을 문예로 그려냈고 일본의 식민지화(침략)를 보여준다.

나라가 못하면 내가 하리라

"나, 울릉·우산 양도 감세관이다"



1696년, 안동복면은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1996년, 우리는 독도를 다시 지켜내야 합니다.

일본의 200배 배타적 경제수역 - 일본탄핵을 줄여 주는 95 해안 영해도, 일제 오키오 소리가 더 울리는 96 해안 마수도 우리 모두, 분노했습니까?

그러나, '안동복면이 누구지?' 하고 되물을 수많은 하우들 - 바로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홍로 당당히 일본과 태수에게 찾아와 스스로를 '울릉·우산양도 감세관'이라 밝히며 독도를 우리 바다를 침범한 사물에 대해 엄중히 사할 것을 호령했던 한 어부가 있었으니 바로 안동복면이었습니다.

독도문제를 분개하는 오늘날의 우리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우리 한국인의 것입니다. 그때 그해엔 추후의 두려움도 울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켜야 할 우리 것을 지키겠다는 서열발같은 조건의 기개(氣概)가 있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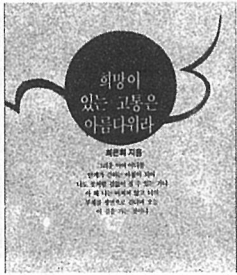
오늘 그 기개(氣概)가 한국인의 무한대지로 이어집니다. 독도여! 안동복면여! 이제 1996년의 한국, 우리 대항인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법을 - 버팔로가 함께 합니다.



시평 — '희망이 있는 고통은 아름답다'

죽음으로 항거한 역사를 향한 추모



우리는 진정한 조국의 봄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아니 스스로를 봉헌함으로써 항쟁의 봄을 이룩했던 열사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남대 국문과에 재학했던 '박승희 열사'를 기억할 것이다. 지금은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분신의 의미를 조롱하듯 그러나 끊임없는 의침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 결국 자유의 봄은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꿈을 태워 질명함으로써 우리들 살려낸 열사들의 열 때문이라 생각한다.

'박승희 열사'와 같은 화과이지, 같이 자취를 찾아 헤메는 제1회 임수경 문학상의 시부문 수상자로 우리에 익숙하다. 필자는 임수경 문학상의 수상자 '나눔'에도 안배고 아버지 '손'으로부터 시인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사회 변화에 대한 열정, 그리고 남도 특유의 감칠맛 나는 언어를 느꼈다. 이어서 1990년에 '속고개 편지(도서출판 대문)', 1992년에는 '희망이'가 출판되었다. 그리고 전북 청년 문학회의 시모임집인 '필

부를 꿈꾼 적이 없다' (1995)에서 최은희의 시 '수선화' 등 6편을 접하게 되었다. '속고개 편지'가 자신의 출생과 환경에 대한 개인적·서정적인 것이라면 '희망이'는 좀 더 시야를 확장시키고 깊이를 가해 시인의 사선이 사회를 향한 민중적 사유와 배아된 절망의 재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희망이'는 박승희 열사의 분신을 열어서 고독스럽게 바라본서 열사의 죽음을 인간적, 사회적 의미로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한 파나노 노력이라 단언할 수 있다.

'희망이'는 살아 남아진 사람의 비통함과 죽은 열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죽음으로 항거한 열사를 향한 추모로 집약되어 있다. '그 고통의 길이와 두께를 따라/ 몸무게를 내 열에서 나는 더욱 외롭다' - / 조국은 알고 있는 길까/ 이렇게 싸운 한 사람의 운명들/ 오늘날/ 조국은 고통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싸운 한 사람의 운명들/ 오늘날/ 조국은 고통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걸까' (내 고통의 길이를 따라 나는 외롭다)

동지의 부재를 운율으로 고통스럽게 안고 있는 그리고 동지의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절박함은 개인적인 충치를 벗어나서 조국, 사회의 아픔과 극복해야 할 무언의 패러다임으로 시 속에 스며들어 있다. 피침같은 몸을 다시 일으키고 근엄하게 조국을 향해 사랑과 분노를 던지면 그러면 조국은 역사의 부패함으로 다시 시인의 가슴과 독자의 가슴 위로 돌아오며, 그 부패함은 시인의 밤을 깨뜨리기 위해 분신한 열사들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땅에서 사는 한/ 이 슬픔에서 자유로운 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에서 시인은 철저히 애국적이고 거세되어 버린 광주, 그리고 불행이기는 언어적 괴리, 더 확장해서 의식의 괴리에서 이탈할 수 없는, 광주와 봄이 공존본모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극복의 대안임을 외치고 있다. 하여 광주를 남도의 도시가 아닌 우리 현대사의 주류가 접해 있는 조국의 도

시이며, 열사들의 분신은 한 개인의 각계물진이 아닌 우리들이 뒤엉켜 있는 삶의 저열함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그러나 시인은 한 인간으로서 박승희 열사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놓치지 않는 서정성도 담보하고 있다. '까맣게 타버린 딱딱한 네 입술에/ 내 입술을 맞추어 나는 작별을 한다/ 울지 않으리라' ('마지막 아침') 한 인간의 죽음을 숙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작가의 고통은 약함이 아닌 단호함,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연결되는 다가를 죽음의 조용한 새벽을 강인하게 부둥켜 안고 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젖지 않고 남아 있는 고통들을 축복하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누구 무엇이 우리에게 이렇게/ 참혹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냐' ('내가 박승희')에서는 삶과 죽음의 틈 속으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정제성을 해이된 길이 없어 심연을 헤엄치기도 한다.

반역의 역사, 새벽보다 눈물이 먼저 하루를 열었던 역사 속에서 살려진 사람으로서 시인은 충분히 참정하다. '아 나는 왜 미치지 않고 고스란히 너의 부재를 정면으로 건디며 오늘 이 길을 가는 것이냐 내가 여기 살아서 이루어야 할 세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비롯되었나니 오래 기다리고 있으라' - ('영원 가는 길')에서는 끊임없이 불과의 단련성을 우리에게 넘겨 놓고 길을 밝힌 열사들에 대한 추모의 정의를 통해 반성적 사유는 현존하는 가치로 상승하고 있으며 미처지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우리가 박승희와 최은희의 연정임을 알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검증 받을 때 이 시집은 충분한 의미로써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삼투되리라 생각한다.

박정원

(대원출판 중국어과 석사 4학기)

시 — 길 가는 자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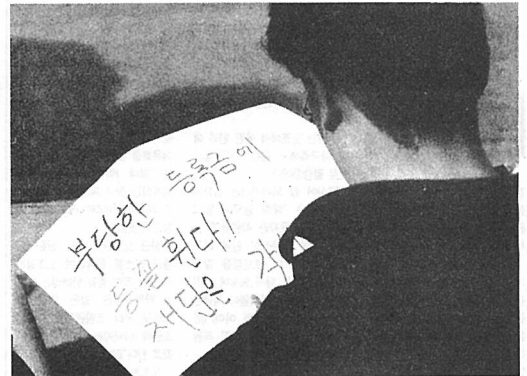
—서울 발 여수 행 막사에서—

항쟁의 내 피비린 수백으로 너의 창가에 기댄 못했다. 어둡고 말로 또 무슨 봄 같은 소리 날까봐 겁이 나는 걸, 그래도 오늘은 바다에 간다. 소금물로 심신을 깨끗이 씻고 싶어서. 바람이 문 틈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의 일출과 일몰을 사십일이 묵묵하게 될 것이 아슬아슬 두려워 그 앞에 서려면 아무런 변명도 내릴 수 없을 것 같아. 어지간하면 좀 고개도 들고 살 아리는데 여직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아무것도 없음을 단 하나의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해서 해서는 바다에 간다. 가슴 절절 피고름을 닦아낼 수 있는가 바다 나는 바다에 너를 맑은 것을 원하는가.

어디든 고개가 있잖아 날아가는 바람만 찾으면 찾아지잖아 내가 바다에 가는 것은 그러나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풀어지려는 이유인데 그것은 고개가 너무도 뻗어서서 한 곳만을 응시하는 눈을 찾고 있어 버리고 도려내야 하는 그 밑지 않은 날들의 정을 하늘로 돌려 보내기 위해서인데 오늘은 바다에 간다 여전히 부채질 너의 창가에 너를 보내주고.

황자해

(중국어87학번 졸업생)



사진수필

한학기 동안 코믹 이브비트를 해서 한학기 등록금을 냈다. 가끔씩 이 돈 모아 시업했어도 한 학 끝났고, 이 돈만을 복권 구입하면 당첨되고도 남겠다는 생각을 한다. 등록금 고지서에 무료 일요일이 나온 거린다. "집 말고 소풍도 다 팔아도 상관없으니, 너는 걱정 말고 공부만 해라" 나는 이곳에서 무료 배우고 있다. 한승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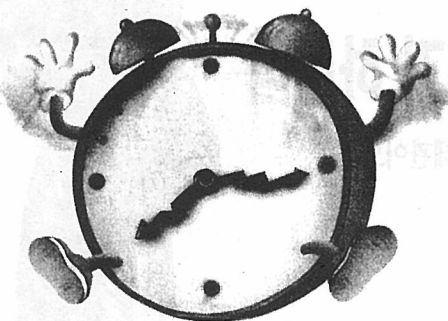
외대학보 창간 41주년 인사

세상을 일깨우는 자명종이 있습니다

자명종이 울립니다.
몽롱한 꿈에서 깨다.
눈 뜨면 버리고 이는 건 모순의 현실이다.
눈 뜨자 보게 되었다.

자명종이 울립니다.
이른 아침의 약속이 기억난다.
불 지핀히 서둘러 온다.
눈 뜨자 움직이게 되었다.

자명종이 울립니다.
그 소리가 경쾌해 힘이 난다.
임한 하루를 살아야 했다.
눈 뜨자 힘을 얻게 되었다.



여기,
41년을 어두운 현실에서 눈뜨게 해 준 자명종이 있습니다.

시대를 알리고자 뛰었던 외대학보가 창간 41주년을 맞았습니다.

41년 동안 세상을 어두운 현실에서 눈뜨게 하고 행동하는 지성의 한길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론직필의 한 길,
시대의 자명종으로 외대학보가 서 있겠습니다.